

트럼프 “최첨단 칩 못쪼” 다음날, 엔비디아 칩 수출 발표

미 상무부, UAE 칩 수출허가 공개
블랙웰 기반의 최신·최첨단 GPU
업체 “외국에 안 파는 건 비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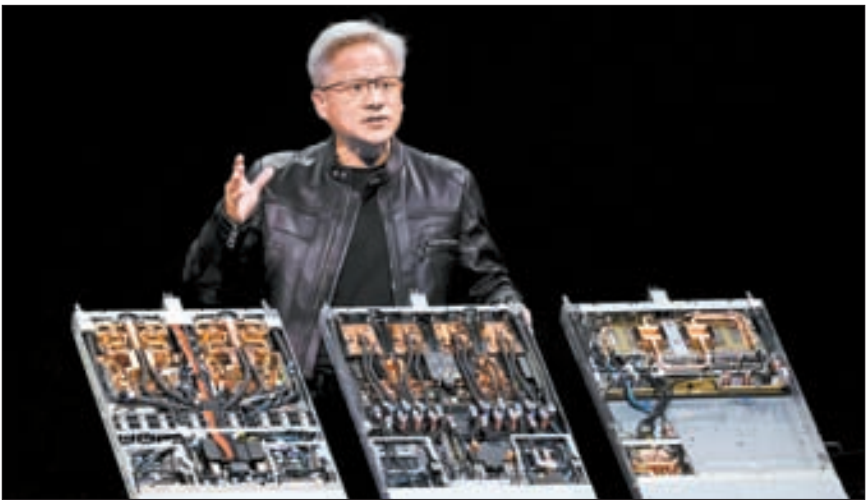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은 미국 외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선언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엔비디아 첨단 칩 6만 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표됐다. 첨단 AI 반도체를 나만의 무기로 삼고 싶고, 자국 기업이 돈 벌 기회도 챙기고 싶은 트럼프 정부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시간) CBS 간판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판매하는 걸 허용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

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상하도록 하겠으나, 최첨단 칩은 예외”라면서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미·중 정상 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매파’ 참모들의 영향이 크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입 허용을 다루려다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측근의 반대로 접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다음 날인 3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공식 블로그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GB300 포함 GPU 6만400장의 UAE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GB300은 블랙웰 기반의 최신·최첨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월 대만 ‘컴퓨텍스 2025’에서 자사의 GPU 72개가 탑재된 AI 가속기 ‘그레이스 블랙웰 NVL72’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GPU다. ‘미국만’ 최첨단 칩을 쪼갬던 트럼프 발언을 뒤집는 결정이 상무부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가 말한 ‘최첨단 칩’의 의미는 모호하다. 최신 설계 구조인 ‘블랙웰’ 적용 칩에는 AI 가속기부터 그래픽카

드까지 제품군이 다양하고, 종종 칩 설계도 이뤄져서다. 최고·최신 GPU는 이미 메타·구글·MS 등 미국 기업이 가장 먼저 가져가고 있다.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블랙웰 GPU 26만 장’에도 이 제품군이 고루 포함돼 있고, 각 비율은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외에 첨단 GPU를 안 판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설계 전문 회사인 엔비디아는 메모리는 한국, 제조는 대만, 소재·장비는 일본·유럽과 긴밀히 손잡고 있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5.48%, 5.58% 하락해 58만6000원과 10만4900원에 마감했다. 전날 급등 후차의 실패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심서현 기자

SNAP 일단 재개… 11월분 절반 지급

법원 명령에 예비자금 투입
수혜자 지급 지연 될 수도

연방정부가 섰다온 사태로 지난 1일 중단했던 SNAP(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을 재개한다. 다만, 수혜자 약 4200만 명이 이달 받는 지원금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농무부(USDA)는 3일 지난달 31일 연방 법원 명령에 따라 SNAP 수혜자들에게 11월분의 50%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USDA 측은 예비비 53억 달러 중 약 4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USDA 측은 당초 아동 급식 프로그램 예산 중 40억 달러를 추가로 끌어와 11월분 전액 지급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동 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공백 우려로 우선 절반 지급을 결정했다.

패트릭 펜 USDA 부차관은 “SNAP 전액 지급을 위해 아동 급식 프로그램 자금 40억 달러를 전용하는 건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한 달치 SNAP 지원을 위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서 끼니를 잃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USDA는 SNAP 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관세 수입 잔금 170억 달러에서 일부를 전용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대신 170억 달러 중 3억 달러를 끌어와 임신부·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에 투입했다.

USDA는 이날 각 주정부에 SNAP 부분 지급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주별로 상이한 전산 시스템으로 실제 지급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펜 부차관은 “일부 주정부 시스템은 노후해 지급률 자동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동 계산이나 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임시 예산안 만료일(11월 21일)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만료일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단기 예산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3일 보도했다.

김경준 기자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전면 확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수집하는 생체정보 대상을 비자 신청자에서 비자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체 정보 수집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 USCI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당국은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체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함)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처럼 검사 후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 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을 폐지하고, DHS가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센터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지속적인 신원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USCIS 개정안은 불과 일주일 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별도의 최종 규정과도 맞물린다.

강한길 기자

☁️ **워싱턴 날씨 (°F)**

☀️

11월 5일(수) 71-46

6일(목)	59-36	☀️	9일(일)	68-38	☁️
7일(금)	66-54	☁️	10일(월)	46-29	☁️
8일(토)	72-47	☁️	11일(화)	47-34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점**
가치적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려,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1/10 ~ 11/14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한인 위해 투표하는 게 행복” 91세 어르신도 투표 참여

애난데일 고령자 투표 행렬
젊은층 참여 저조 아쉬움 커

“한인사회 권익 위해 투표하는 게 행복이지.”
버지니아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한인 고령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이어졌다.
에버그린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윤기지(91) 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애난데일 소방국을 찾아 투표했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씨는 “오래 살아 투표할 수 있다는 것과, 미래 한인사회 권익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짚은 사람이 꼭



한인 어르신들이 애난데일서 투표를 마친 후 귀가 버스에 오르고 있다.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있는 동안 계속 투표할 것이다”며 “한 뒤이어 나온 박중원(91) 씨는 “살아 표 한 표가 크고 소중한데. 새로 선택

을 받은 당선자들이 버지니아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신분증 확인을 마친 뒤 공손히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집어넣은 후 웃으며 투표소를 빠져나와 관심을 끌었다.
타이슨스의 투표소를 이른 아침 찾은 60대 김모 씨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면서 “한인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부터 애난데일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 봉사활동을 펼친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 우태창 회장은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연합회 봉사원으로 참여한 최희대 명예회장은 “매해 선거 관련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마다 한인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선거에는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가 부쩍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투표에 참가한 한인 유권자들은 주지사, 부주지사, 법무장관, 그리고 주 하원을 선출하는데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김성환 기자

사격연맹 DC지회, 트랩 스킷 챔피언십 개최

워싱턴DC 재미대한사격연맹

재미대한사격연맹 워싱턴DC지회(회장 지대성)는 오는 11월 8일(토) 오전 9시, 버지니아 센터벨 소재 아이작 월튼 리그 알링턴-페어팩스지구(Arlington-Fairfax Chapter of the Izaak Walton League of America) 샷건 경기장에서, 회장배 트랩 스킷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접수는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이며 사격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경기방식은 트랩50발과 스킷50발 형식으로 진행된다.
‘트랩’은 5개 사격대에서 일렬로 서서 사격하는데, 사수 앞의 한 지점에서 불규칙한 방향으로 표적이 날아오르면 한 번에 한 개의 표적을 맞추게 된다. 스킷 종목은 표적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킷트’ 종목은 반원형의 사로

8지점을 돌며사격을 하는데, 반원형 사로의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방출기에서 정해진 패턴으로 표적이 날아오르게 된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표적을 맞추게 되는데 여러 위치에서 다양한 각도의 표적을 맞추는 기술이 필요한 종목이다.
장소: 14708 Mt.Olive Rd., Centreville, VA 20121
문의: 202-384-4240 지대성 지회장
홍알벗 기자

전 부통령 딕 체니 별세... 향년 84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가 지난 3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가족에 따르면 사인은 폐렴과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합병증이다.
체니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시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내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정책과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네브라스카주 링컨에서 태어나 와이오밍주에서 성장했으며,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포드 행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고, 1979년부터 10년간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도 공화당 내 보수파의 상징적 인물로 활동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시절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등 당내 갈등의 한 축으로 남았다.
김윤미 기자



VA 페어팩스카운티 4억 달러 공채 자금 집행 착수

AAA 신용등급 유지 속
금리 3.57%로 발행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최근 4억달러 규모의 일반의무채권(General Obligation Bond)발행을 완

료하고 자금 집행에 들어갔다.
카운티는 지난 2월 공채를 연이자율 3.57%로 발행했으며, 이는 전국 지방채 평균 금리인 4.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채권은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스탠다드앤드푸어스

(S&P), 피치(Fitch)로 부터 모두 최고 등급 AAA를 부여받았다.
현재 미국 애 지방정부 가운데 3대 기관 모두로부터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53곳뿐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1975년(무디스), 1978년(S&P), 1997년(피치) 이후 현재까지 최고 등급

을 유지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AAA 등급 유지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 약 10억6천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 자금은 학교 건설 및 리노베이션(2억3천만 달러), 공공안전시설(5천5백만 달러), 교통 혼잡 완화(4천4백만 달러), 공원 시설 개선(2천5백만 달러), 복지시설 개선(2천5백만 달러), 도서관 개선(2천1백만 달러) 분야에 투

입된다.
카운티는 특히 공립학교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행이 '성공적인 조달'로 평가되지만, 향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재정 운영과 사업 우선순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쿼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피력을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美재무부, 北개인·기관 신규제재…“北사이버범죄 자금세탁”

北, 핵무기자금 사이버범죄 수익창출
트럼프 방한 계기 북미정상회담 불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련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대북 제재를 회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며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 역시 이 같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EAC)은 4일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련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가상자산) 53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왔다. 회사 소속 IT 인력은 불법적으로 창출한 수익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준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라·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미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해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 위치한 은행 대표자, 금융기관, 유명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무부는 “미국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그와 연계된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관련 세력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련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방한(10월29~30일) 계기에 개최 기대를 피력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유미 기자

Prop.36 시행 1년... 절도는 억제, 재활은 제자리

(상습 절도·마약 재범자 처벌 강화)

LA·OC 등서 1만3000명 기소
치료 참여 10명 중 2명도 안돼

상습 절도와 마약 범죄 재범자 등을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한 ‘주민발의안 36’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그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절도 범죄를 억제하고 마약 중독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처벌 강화로 인한 교정시설 포화화 와 낮은 재활 치료 참여율을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2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주민

발의안 36 시행 약 1년 만에 LA·오렌지·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총 1만3000명 이상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00여 명은 ‘치료명령 중범죄법’에 따른 마약 범죄자로 나타났다.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나 마약 소지 재범 이상을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범에 대해서는 치료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이후 통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LA카운티에서 관련 기소는 총 4151건으로, 이 중 절도

사건이 2489건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약 5000건의 기소 중 절도 사건이 1085건이었고, 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도 총 2970건 중 절도 사건이 129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마약 관련 중범죄자를 위한 치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정시설만 포화 상태가 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 전역 57개 카운티에서 마약 관련 중범죄로 기소된 8895명 가운데 15%(1290명)만이 치료를 선택했으며, 이 중 실제 재활치료 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771명에 불과했다.

김형재 기자

스텔란티스 PHEV 32만대 리콜

“배터리 화재 위험”

자동차제조사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32만대를 리콜한다고 회사 측이 4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2020~2025년식 지프 랭글러 ‘4xe’ 모델과 2022~2026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모델로, 모두 PHEV 기종이다.

스텔란티스는 이들 모델과 관련한 19건의 화재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HTSA)은 소유자들은 이들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때까지 건물과 다른 차량으로부터 떨어

진 야외에 주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텔란티스는 이들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말고 방전 상태에 두라고 권고했다. 이들 차량은 배터리 셀 분리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NHTSA는 설명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2만753대), 멕시코(2천653대)를 비롯해 북미 이외 지역에서 판매된 약 3만2천대의 차량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 한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프 랭글러 4xe 모델이 한국에도 수입돼 현재 판매 중이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된 모델이 이번 리콜의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운틴하이 인근서 한인 교통사고 사망

50대 한인 남성이 마운틴하이 스키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필립 최(52)씨가 지난 1일 오전 11시 3분쯤 라르고 비스타 로드 인근 빅 파인스 하이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마운틴하이 스키 리조트에서 서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곳이다.

CHP 측은 “이번 사고는 최씨 차량의 단독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은 CHP와 LA카운티 소방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먼저 도

착한 소방국 구조대원들이 최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CHP 엔텔로프 밸리 지서 측은 3일 본지의 추가 피해자 및 동승자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문의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www.koreadaily.com

워싱턴지역 한인 커뮤니티

- 렌탈/부동산 정보
- 구인구직 정보
- 커뮤니티
- 미주지역 정보 서비스

1석5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ia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etc.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버지니아 (VA)
버지니아 (러지몬드)
메릴랜드 (MD)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연방 섀다운 장기화에 항공대란

관제·보안원 부족에 차질
휴스턴 공항 보안 검색 3시간
추수감사절 시즌 대혼잡 전망

연방정부 섀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항공 관제사와 보안검색 요원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 운항 지연이 발생하며 승객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다.

LA타임스는 지난 2일 LA국제공항(LAX)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평균 1시간 이상, 최대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48분부터 12시간 넘게 '인력 부족'을 이유로 LAX에 지상 대기 명령이 내려졌으며, 국내선 항공편이 주로 영향을 받았다. 샌디에이고 공항 역시 관제사 부족으로 평균 80분가량이 지연됐다. FAA는 "관제 인력이 부족해 항공기

이착륙 간격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선 운항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항공 지연은 남가주뿐 아니라 전국 주요 공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매체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3일 오전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요원이 부족해 보안 검색 대기시간이 최장 3시간에 달했다. 한 승객은 "2일(일요일)에는 3시간 기다리다 비행기를 놓쳤다"며 "오늘은 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청(TSA)은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 중이며, 병가 등으로 인해 일부 공항은 프리체크 라인조차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FAA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3000명의 관제사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목표 인력보다 3500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관제사 다수가 주 6일 초과근무를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 출국장 앞이 3일 보안 검색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John Arnold/X]

이어가는 가운데, 섀다운 장기화로 피로 누적과 결근이 잦아지면서 인력 부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 전 공역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지연이 심각하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 연합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10월 이후 관제 인력 문제로 지연·취소된 항공편이 320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정보업체 '플라이트어웨어' 역시 3일 오후 2시 기준 미국 내의 항공편 2886편이 지연되고, 575편이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섀다운이 길

어질 경우 연말 여행 수요가 몰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11월 말)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유나이티드항공 스콧 커비 최고경영자(CEO)는 "추수감사절 성수기 예약과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존 제로’ 연내 시행 앞두고 주민 반발 확산

〈산불 발화 차단〉

주택 5피트 내 식생 금지 비판
정부의 과도한 개입 지적 많아
당국은 “발화 차단 위해 필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올해 말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주택가 ‘존 제로(Zone Zero)’ 규정 마련을 지시했지만, LA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존 제로 규정을 근거로 주택 주변 5피트 이내를 ‘발화 차단 구역’으로 지정하면, 애써 가꾸온 조경식물을 제거해야 하는 등 비용만 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소방국과 산림·소방위원회(BFFP)가 산불 예방 규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두 기관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에 따라 연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2020년 제정된 법의 지연된 시행을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두 기관은 LA, 패서디나 등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존 제로 규정 초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브렌트우드와 패서디나 등 부유층 거주 지역일수록 주택 소유주들의 정부 간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존 제로 규정 초안은 주택 인근 사유지의 조경 관리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 5피트 이내 식물 및 조경 자체 금지 ▶지붕·벽과 최소 5피트, 굴뚝 주변은 10

피트 이상 나무 가지치기 ▶불연성 화분에 담긴 소형 식물만 예외 허용 ▶목재 담장·데크는 불연성 자재로 교체 등이다.

산림·소방위원회와 존 제로 규정을 찬성하는 측은 지난 1월 LA 대형 산불이 주택가로 빠르게 번진 점을 들어, 주택 인접 구역에 ‘발화 차단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발화 차단 구역을 두면 불씨가 주택으로 옮겨붙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산림·소방위원회 주장과 달리 발화 차단 구역의 실질적 효과나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UC샌타바버라에서 산불 발화 및 확산을 연구하는 맥스 모리츠 교수도 “존 제로 설정 과정에서 주택 주변 식생과 화재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 논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삼성전자, 1억 9천만불 배상’ 배심원 OLED 기술 침해 인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



다. 픽티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패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거스름돈 없어요” ... 1센트 동전이 사라졌다

올해 초 페니 생산 중단 여파
잔돈 맞춰 현금 주기 어려워
가격 ‘5센트’ 단위로 정할 판

‘1센트(페니)’ 동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높은 주조 비용을 이유로 페니 생산을 중단한 이후, 현금 거래 시 잔돈을 맞춰줄 1센트짜리 동전이 시중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다.

최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99센트’짜리 커피를 주문한 김정준(가명) 씨는 직원으로부터 “바꿔줄 잔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텍스까지 포함된 커피 가격이 1달러 8센트여서 현금(1달러 10센트)을 냈는데, 직원이 거스름돈을 받을 거냐고 물더라”며 “1센트짜리가 없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이미 ‘페니 불균형’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산하 165개 동전 유통센터 중 약 3분의 1이 페니 입출금 업무를 중단하면서 1센트 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김중철 회장은 “앞으로는 가격 끝자리를 1센트 단위가 아닌 5센트 단위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23센트짜리 제품을 20센트로 내리면 업주는 손해를 보고, 올리면 소비자 불만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금 거래가 많은 업소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잔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LA지역 한남체인 관계자 역시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앞으로 반올림 정책에 맞춰 가격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손님이 돈을 냈는데 잔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KTLA도 지난달 31일 맥도날드를



LA한인타운의 한 마켓에서 한 손님이 페니 등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세고 있다. 김상진 기자

비롯한 주요 소매업체들이 ‘1센트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도날드 본사 측은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1센트 동전 생산이 중단되면서 일부 매장에서 정확한 거스름돈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페니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매장마다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편의점 체인 러브스(Love’s)와 퀵트립(Kwik Trip)은 잔돈 부족으로 현금 거래를 5센트 단위로 내림 계산을 하고있다. 또 다른 편의점 체인인 시츠(Sheetz)는 “페니 100개를 가져오면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LA 한인타운 상권도 긴장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도리스 김 대표는 “요즘은 카드 결제가 많아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현금 손님이 많은 업종은 앞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USA투데이는 최근 일부 주에서는 결제 금액을 반올림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많은 매장이 손실을 감수하며 내림 계산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연방의회는 지난 4월 현금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조정하는 ‘커먼 센츠 법안(Common Cents Act)’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5월 마지막 구리-아연 원판(플랜켓)을 발주한 뒤 6월에 1센트 동전 생산을 종료했다. 8월까지 배포된 물량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마지막 페니들이다.

강한길 기자

AI, 거북목·복부비만·탈모 경고 25년 뒤 인류, 이렇게 변한다

인공지능(AI)이 예측한 25년 뒤 인류의 모습이 공개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걸음 수 추적 앱 ‘위워드(WeWard)’는 “지금처럼 살아서만 사는 생활을 계속하면 2050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했다.

위워드는 AI가 예측한 인물을 ‘샘(Sam)’이라 명명하며 “운동 부족이 신체 외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시각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샘의 모습은 오랜 좌식 생활로 인해 열량 소모가 적고 신진대사가 느려져 배에 지방이 쌓여 복부비만인 모습이다. 장시간 앉아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허리는 굽고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졌으며 상체는 굽은 거북목이다. 안구는 충혈됐다.

엉덩이와 무릎 등 다른 관절도 뻣뻣한 데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발목과 발은 통통 부어있다. 또 좌식



생활로 인해 발생한 피로와 혈액순환 악화, 영양 불균형으로 모발은 가늘어져 탈모가 발생했고 혈관 건강도 악화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색소가 침착된 모습이다.

위워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샘’처럼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구슬 기자

인권 외치던 BLM, 또 기부금 사기 혐의

9000만불 모금 어디에 썼나

2021·22·24년에도 구설

부적절한 자금 사용과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이어져 온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BLM)’ 재단이 기부금 사기 혐의로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된 BLM 기부금 사기 수사와 관련해 연방 수사당국이 최근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BLMGNF)’과 일부 흑인 인권 단체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최소 한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BLM 재단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



코니어스-페이지

패트리스 켈러스

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시위와 함께 약 90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이후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공동 창립자 패트리스 켈러스가 가족 소유 회사에 23만8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

표지에서 물러났다. 2022년에는 재단이 기부금 약 580만 달러로 LA 스튜디오 시티 지역의 7개 침실과 7개 욕실을 갖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같은 해 가족과 워싱턴주 정부는 재정 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재단에 기부금 모금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재단은 공식 웹사이트의 모금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약 20만 달러의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된 애틀랜타 지부 리더 타이리 코니어스-페이지가 전신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4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윤재 기자

싱가포르, 사기범죄 초강수 대책

“최소 6대~최대 24대 태형”

싱가포르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방자 사기) 등 국제 온라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도입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범과 공범자에게 태형을 의무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나 피해자 모집책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또한 대포통장·신분증·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자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 보고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총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영태 기자

워싱턴가정상담소 51주년 기금모금 오찬

CONNECTING HEARTS AND MINDS

FCCCW 51st ANNIVERSARY FUNDRAISER

LUNCHEON

K-POP팀의 흥겨운 무대와 각종 경품 행사, 손목자 재단 장학금 수혜자 시상식 및 맛있는 식사를 곁들여 분위기의 컨트리클럽에서 즐기세요!



Keynote Speaker

ANGIE KIM

New York Times best seller author



CONGRATULATORY SPEAKER

BRENNAN GANG

Vice President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CONGRATULATORY SPEAKER

GLORIA ADDO-AYENSU, MD, MPH

Director of Health

Fairfax County Health Department

일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Army Navy Country Club
1700 Army Navy Dr. Arlington, VA 22202

•티켓: \$150
•문의: 703-761-2225, event@fccgw.org
•스폰서 / 티켓구매 QR Code



후원 •장학금 후원 (\$10K) Kim Sohn Foundation

•Platinum 후원 (\$5K)



Lily & Eugene Kim Charitable Trust



워싱턴 가정상담소 이사장 박조이

1952 Gallows Rd. #210, Vienna, VA 22182 • 703-761-2225 • www.fccgw.org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해도 ... 보유세 40% 이상 오를 듯

〈반포자이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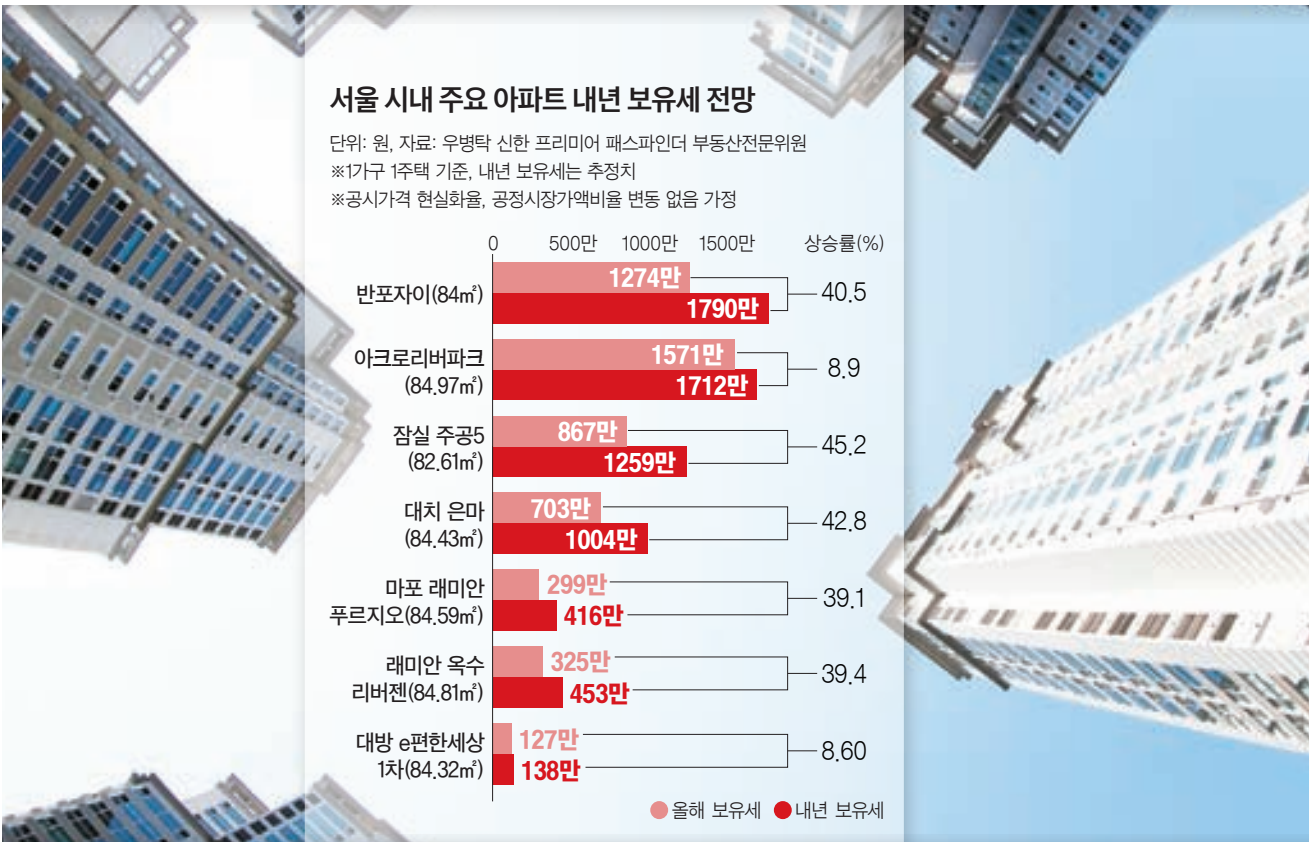
내년 아파트 보유세 모의계산 해보니

서울 강남과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많게는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다.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1790만원으로 올해(1274만원)보다 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634만원→682만원)보다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641만원→1108만원) 상승 폭이 컸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올해 수준인 60%·45%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올해 반포자이 84㎡ 시세는 1월 40억원에서 10월 50억원 정도로 뛰었다.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올해 27억 7400만원에서 내년 34억 675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중앙포토]

올 시세 10억 오른 반포자이 84㎡ 보유세 1274만원→1790만원
은마 43% 마래푸 39% 오를 듯
집값 상승에 누진세율로 상승폭 커져

집값이 높은 강남권은 보유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 보유세는 올해 867만원에서 내년에는 1259만원으로 45.2%, 강남구 대치동 은마(84㎡)는 703만원에서 1004만원으로 42.8% 오른다.

올해 상승세가 가팔랐던 다른 지역의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84㎡)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원으로 올해(299만원)보다 39.1% 오르고, 성동구 레미안 옥

수 리버젠(84㎡)도 올해(325만원)보다 39.4% 오른 453만원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오름 폭이 크지 않았던 단지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동작구 대방 e-편한세상 1차(84㎡)의 보유세는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엔 138만원으로 11만원(8.6%)가량 오른다. 이 아파트는 올해 집값 상승률이 3.7%(13억 5000만원→14억원)다. 우병탁 위원은

“아파트값 상승 폭 자체도 보유세에 반영되지만, 누진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종부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 전체 보유세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69%)으로 동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세변동만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서다. 여기에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 행정 목적으로 사용돼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주요 지역은 세금이 크게 증가했다. 정치적인 부담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시가격 대신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다.

결국 고가 주택의 보유세만 겨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국회의원도 ‘똥똥한 한 채’ 선호 ... 보유 주택 5채 중 1채는 강남에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1위 382억 박정, 2위 314억 박덕흠

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권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

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前)국회의원’을 포함한 299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유주택자는 234명(78%)이고, 무주택자는 65명에 그쳤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20.4%)으로 집계됐다. 주택 299채 중 134채(44.81%)가 서울에 집중됐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범위를 좁히면 61채다. 강남 4구 주택 보유자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명, 전직 의원 3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강남 4구 보유 주택을 전세 임대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선 전세로 살면서 강남에 ‘똥똥한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22대 국회의원 전체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5289만원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 전 가구 부동산 자산 평균인 4억 1752만원과 비교하면

4.68배 많다. 정당별로 따지면 민주당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4억 1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3.4배였고, 국민의힘의 경우 29억 8000만원으로 국민의 7.1배였다.

부동산 재산 1위는 총 382억 5230만원 규모의 박정 민주당 의원이었다. 2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314억 8464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국민의힘 김은혜(202억원), 서명옥(187억원), 백종현(183억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문상혁 기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

하는 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정보를 중앙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가 명백히 자살 유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

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를 국가·지방정부가 추가 보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정세내 기자



LOGOS LAW GROUP
GUIDED BY FAITH, ROOTED IN INTEGRITY, SERVING WITH PROFESSIONALISM.

로고스 법률 그룹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틀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비즈니스 / 부동산

- 비즈니스 설립 / 매매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선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십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Transfer on Death Deed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틀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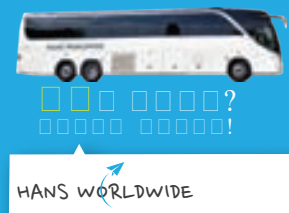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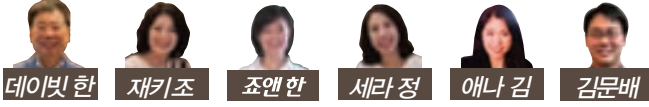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48 Ellicott Center Dr. #103, Ellicott City, MD 21043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HANS WORLDWIDE



데이빗 한 재키 조 조앤 한 세라 정 애나 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2025-2026년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마갑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마갑
01/10(토)~01/19(월)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마갑
11/26(수)~11/30(일)	탱스기빙 코스타리카	마갑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마갑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마갑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3,590	재키 조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2,190 항공포함	애나 김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조앤 한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02/23(월)~03/22(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27박28일	\$20,500	재키 조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5,995	재키 조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올 가을 특별한 광동! 뮤지컬 특선 당일 투어!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3차 오픈! 12/13(토)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1차 11/13(~~마갑~~) 2차 11/22(~~마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모차르트의 선율,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1차 12/14(일), 2차 12/20(토)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뉴욕의 크리스마스! 라디오시티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

12/18(목)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249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790	애나 김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	10박11일	\$3,590	세라 정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12박13일	\$3,690	조앤 한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6/15(월)~0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10박11일	\$6,695	재키 조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세라 정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조앤 한			
08/15(토)~08/28(금) 그린랜드 + 아이슬랜드			
13박14일 \$12,990 재키 조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5,995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7박8일 \$6,995			
08/12(수)~08/18(화) 알라스카 애나 김			
09/07(월)~09/16(수)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애나 김			
09/21(월)~09/29(화) 발칸+크로아티아+돌로미테 세라 정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애나 김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세라 정			

북인도 & 두바이

1 북인도+두바이 12박13일
1/29(목)~2/10(화) \$4,890 항공불포함
2 신비의 북인도여행 10박11일
1/29(목)~2/8(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남인도 & 스리랑카

1 남인도 & 스리랑카 12박13일
2/9(월)~2/21(토) \$5,150 항공불포함
2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14(토)~2/21(토) \$2,98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카이로-아스완-아부심벨-나일크루즈(콤오보,에드푸,룩소)-사카라-기자-카이로
9박10일 2/17(화)~2/26(목)
\$4,190 항공불포함 인솔자:데이빗 한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한스 타돌 전일정 5성급 호텔, 리무진 버스 투어

2026년 4/11(토)~4/18(토) 인솔자:재키 조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럭스 7박8일 \$2,590 항공 불포함
서울-군산-목포-해남-순천-여수-진주-거제-외도-통영-안동-영주-원주-서울

(2025년 11/2, 11/9 서울에서 출발)
내륙일주 6박7일 \$1,550 항공 불포함
전국일주(제주포함) 9박10일 \$2,35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인솔자:애나 김

따바론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 생태공원
5박6일 2026년 2/9(월)~2/14(토)
항공포함 \$2,190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골프 3라운딩 + 따바론 온천
앵콜 2/19(목)~2/24(화)
5박6일 항공포함 \$2,350 인솔자:세라 정
1/8(목), 1/12(월) 4분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가격문의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12/29(월)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목요일 출발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수요일 출발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 출발 \$1,350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원철 “대통령 적용 혐의 너무 황당”

〈법제처장〉

유튜브 출연해 ‘대통령 변호’ 또 논란
법제처장 부적절 발언 지적엔 “동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4일 조 처장

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 기관장이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훼손으로,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조 처장은 변호를 계속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공직에 남고 싶다면 대통령의 사적 변론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처장은 전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엮은 것 아닌가’라고 묻자,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톨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혐의는) 다 무죄

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지난달 24일) 발언에 대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였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 처장은 또 “한 야당 의원이 이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라는 표현을 계속했기 때문에 처음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말했다”며 “그렇다면 무죄

라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그러다 보니 ‘무죄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다섯 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초뿐 아니라 기왕에 진행되던 재판의 진행도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고,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했다”며 “필요 없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대통령, 조희대에 악수 청하며 “대법원장님 등 지원에 APEC 성과”

‘상복시위’ 야당엔 고개 숙여 인사
정청래, 대통령과 악수 사진 올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본회의장 바깥 풍경도 두 쪽으로 나뉘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에 도착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관 현관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다. 보통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하지만 우 의장이 직접 나서 존중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본관에 진입해 마주한 건 검은 마스크를 쓰고 ‘근조 자유민주주의’라고 쓰인 피켓을 든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죄자 왔다” “재

판 받으세요” “우원식 정신 차려!” 등을 외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만남도 연설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날 대통령실이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려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직후여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불편한 기류를 연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연설 직후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어 화기애애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선 최근 민주당이

“사퇴하라”며 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며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우리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네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나한 기자

“尹, 한동훈 총 쏘죽인다 말해” 증언에…野대변인 “친구끼리 농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총으로 쏘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광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친구끼리 농담”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놔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광 전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한다”며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얘기는 왕왕한다.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윤 전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광 전 사령관) 본인 이 뭐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거를 비껴가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서 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은 장난이었냐”라며 이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었냐”라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감옥에 있냐. 잔인하고 나



지난해 7월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대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광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 만찬 때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 등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앞에 잡아 와라. 총으로 쏘서라도 죽

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광 전 사령관은 만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광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먹었다.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광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했는지니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한동훈 이야기 분명히 하겠다”며 문제의 증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셔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광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하진 않았다. 장구슬 기자

조갑제 “尹 ‘폭탄주 만취’ 실토…음주습관 탓 발작적 계엄”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려다 자신의 평소 음주습관이 들끓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음주습관이 계엄령 선포에 영향을 줬을 거란 추측을 내놓았다.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 대표는 지난 3일 윤 전 대

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당시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 관저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 오면 총으로 쏘 죽이겠다고 하더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 "광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광종근 증인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날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이야기, 폭탄주 이야기를 했다”며 “자기를 변호하려다 술 이야기를 한 건 알겠지만 대통령이 ‘폭

탄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지난 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군의 날은 군인 생일인데 거기서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 관저주거 공간으로 가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냐”라며 사실, 비상대권 등의 이야기를 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만취해 그럴 정신도 아니었다며 광 전 사령관 증언을 반박하려 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는 본인의 음주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폭탄주를 마시고 ‘한동훈 등을 잡아 오면 내가 총으로 쏘 죽이겠다’고 격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분 간 수치가 정상인의 여섯 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음주습관도 불법계엄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야당 “추경호 영장, 당 말살 보복수사” 본회의장 밖 상복시위

긴급의총 개최...장동혁 “이제 전쟁”
송언석 “내란세력 몰기 위한 것”
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특검 “추, 친한계 표결 참여 방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다. 당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전날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급변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지 못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은석 특검은 그동안 (특검)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입증했다”며 “이제 전쟁이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당을 해산시키고 말겠다는 야당 말살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추 의원) 영장에서 작권남용 혐의가 빠지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도 빠졌다. 특검의 ‘표결 장애’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언어 장애가 생길 지경”이라고 했다. 의총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여명과 사무처 당직자는 오전 9시30분쯤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각에 맞춰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검은색 마스

크를 쓰고, 상복 차림을 한 채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리본을 달았다. 제일 앞줄에 선 송 원내대표는 영정 사진을 본뜬 ‘근조 자유민주주의’란 꽃말을 들었고, 다른 의원들은 ‘명비어천가’ ‘야당 파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쥐고 시위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주요영국회 부의장은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107명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에 나선 건 추 의원 구속이 내란 정당으로 휩쓸리는 중대 변곡점이 되기 때문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영장 청구는)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우리 당의 숙명적 사안이 됐다”고 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여 뒤 한동훈 전 대표와 통화하면서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원내 관계자는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90명의 의원들과 당직자도 모조리 특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 의원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논리가 통한다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 보수 진영은 단일대오로 “영장 기각”을 외쳤다. 계엄 직후만 해도 표결 참여 문제로 국민의힘 주류와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게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추 의원 영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표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를 맞보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한동훈 “이대통령, 재판 재개시 계엄 가능성”...민주당 “정신차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차리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지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

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이 대통령 재판 관련) 파기환송 자체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재판이 재개됐을 때 민주당이 재판에 승복하겠느냐”고 뒤통수를 쳤다. 이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제정신 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 법무부장관이자 여당의 전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 대통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정책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령을 내란수괴와 동일 선상에 놓는 판단력 붕괴에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향해 “극단적 발언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정치적 과잉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의 위기관리와 법치주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단호히 경고한다”며 “한 전 대표께서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망언 릴레이를 즉시 중단하고, 제정신을 차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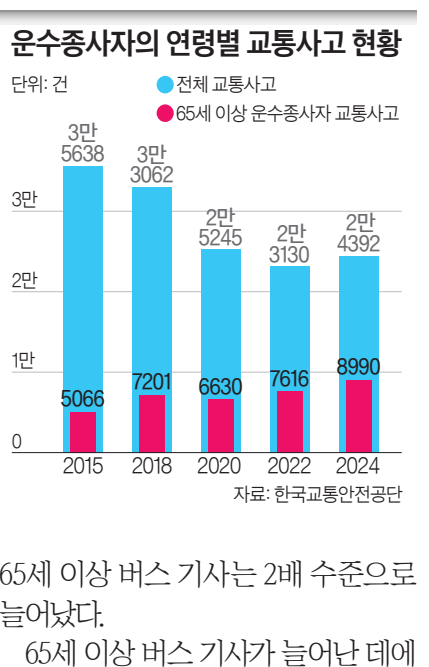
65세 이상 버스기사 2배로 ... “은퇴자 재고용 늘어난 탓”

〈5년세〉

버스기사 중 65세 이상 20% 돌파
노조 “인건비 줄이려, 고령자 늘려”
운수업 교통사고, 65세 이상 37%
“사각지대 감지 등 안전장치 늘려야”

지난 8월 10일 부산 서면에서 시내버스가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졌다. 버스 기사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제동장치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기사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7세 촉탁직이었다. 지난 5월 9일 서울 동작구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마을버스에서 내린 20대 승객이 발을 헛디뎈 넘어졌다. 버스 기

사는 넘어진 20대 승객을 보지 못한 채 출발했다. 20대 승객은 마을버스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버스 기사의 고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버스 기사(시내·시외·마을·고속·전세·특수여객) 14만7445명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는 3만206명이다. 전체 버스 기사 중 65세 이상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20년 65세 이상 버스 기사는 1만4477명으로 전체 버스 기사(13만4710)의 10.7%였다. 2022년에는 2만324명으로 전체 버스 기사의 15%를 넘어서더니 2025년 20.5%를 기록했다. 5년 만에



는 63세를 전후로 정년퇴직하는 기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광재 민주버스노조 부산지부장은 “촉탁직 버스 기사 시급은 1만2000원으로 정규직 시급 1만8000원에 비해 30%가량 낮다”며 “인건비를 아끼려고 촉탁직 채용을 늘린 탓에 고령 운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는 촉탁직 채용은 버스업체 자율 사항이라며 뒷집을 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사 간 단체 협약 사항이라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다만 서면 교통사고를 계기로 최근 부산 33개 버스업체에 촉탁직 연령 인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시

내버스 사고 514건 가운데 연령대별로 기사 1인당 사고 건수를 비교하면 60세~62세가 0.1건으로 가장 많고 63세~70세가 0.0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8990건으로 전체 운수종사자 교통사고(2만4392건)의 36.9%를 차지했다. 2015년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5066건으로 전체 사고(3만5638건)의 14.2%였다. 최양원 연산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는 통상 비고령자보다 반응이 느리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검사와 인지 반응 교육을 늘리고 버스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심원장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내 집 마련, 가문 프로젝트...집값 뛰자 부모찬스 2배 뛰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며 20·30세대의 부동산 ‘부모 찬스’ 의존이 1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부모나 조 부모에게서 증여·상속받거나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의 대물림’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서울 지역 주택 취득 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입자(자금계획서 제출자) 3명 중 1명(33%)은 20·30대였다.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증여·상속으로 충당할 금액은 5조7413억원으로, 1년 전(2조8227억원)의 2배 이상(103%)으로 늘었다. 건수 역시 4601건으로 전년(2498건) 대비 84% 늘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을 사는 규모도 커졌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올 상반기 2133건으로 전년 상반기(1251건) 대비 71% 증가했다. 금액은 2조4753억원으로 1년 전(1조3486억원)보다 83.5% 급증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증여 성격이 강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모 찬스’를 통해 혜택을 본 1인당 평균 금액(증여·상속 12억4000만원, 직계존비속 대출 11억6000만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

기에도 정부의 세제 강화와 맞물려 가족 간 증여·상속이나 대출을 활용한 거래가 활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부모 찬스’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드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2022년 상반기에는 증여·상속이 2506건, 직계존비속 대출이 156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58% 감소한 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자산가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현금 가치 하락을 함께 고려한다”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집을 먼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산 정리와 맞물려, 증여·대출의 형태로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부의 대물림이 확산하는 양상을 우려한다. 박성훈 의원은 “부모 찬스가 사실상 주택 구매의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이제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부모의 재력에 좌우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질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부모 찬스로 강남의 톱톱한 집 한 채를 사는데 나는 뭘?’라는 생각이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준다”며 “부모 찬스에는 세금 탈루 등이 없는지 ‘핀셋 대책’을 고려하고, 임대주택과 함께 구도심 개발을 병행하는 등 청년 주택을 위한 대책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한국대학, QS 아시아 톱10 전원 탈락

연세대 11위·고려대 12위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6 아시아대학순위’에서 국내 대학이 상위 1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QS는 4일(현지시간)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과 협력’ 고등교육 서밋 행사에서 이번 순위를 공식 발표했다.

평가 대상이 된 한국 대학 103곳 중 순위가 상승한 곳은 31곳, 유지 14곳, 하락 53곳, 그리고 신규 진입 5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가 11위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려대 12위, 성균관대 16위, 서울대 17위, 포항공

대(POSTECH) 18위, 한양대 20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세대는 2계단 하락, 한양대는 1계단 떨어졌다. 반면 고려대와 서울대는 각각 1계단 상승, 포항공대는 4계단 상승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소속 교수가 해외 연구자들에게 QS 설문 참여를 유도하며 상품권 제공을 약속

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아시아 최상위권은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 대학들이 휩쓸었다. 1위는 홍콩대, 2위는 중국 베이징대, 3위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가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국립대(4위), 중국 푸단대(5위), 홍콩과학기술대(6위), 홍콩시립대·홍콩 중문대학(공동 7위), 중국 칭화대(9위), 홍콩이공대(10위) 순이었다.

일본의 도쿄대는 지난해보다 5계단 하락한 26위에 머물렀다.

QS는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대학은 계속해서 고등교육의 탁월함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그 우수성이 포항, 울산, 대전, 광주 등 수도권 밖 지역에서도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든 혁신은 대학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AI 인프라와 미래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 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쌤이 수업중 윤 비하 불편해요”

경기 성남의 A고교에서 최근 학생이 교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과문이 일었다. 학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비유한 B교사의 인스타그램에 “조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박정희 패악질과 인권유린을 찾아보라”고 응수했고 이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자 교장은 교사에게 구두로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찾은 A고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은 “(B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퇴진 집회에 갔다고 해 불편했다”며 “나는 다른 정치 색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B교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여전히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많다”고 전했다. “학생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가 SNS에 올린 발언

은 수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정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수업 시간 외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 ▷정당 가입 ▷재직 중 선거 출마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포함돼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 발언의 정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다. 또 교사가 SNS에 올린 글이 과연 수업과 동떨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정치 발언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처벌할 명확한 내부 규정은 없다.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지난 2월 인천의 한 중학교 내에 붙여진 게시물.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게시물은 철거됐다.

[독자 제공]

규칙’에 따라 교사가 정치 운동을 할 경우에 ‘감봉이나 견책’을 주는 징계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를 정치 운동으로 볼지가 애매하다.

2019년 서울 관악구 인현고에서는 교사의 정치사상 주입 논란으로 학생

들이 반발했지만, 교육청은 발언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김민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고와 특수학교 교원에 내려진 징계 950건 중 ‘정치 운동·선거 관련 위반’ 항목은 1건에 불과했다. 교사 출신인 최성민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 지속했는지, 학생들의 반론권을 줬는지 등을 따져 징계를 결정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발언까지 처벌 기준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학교 현장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은 늘고 있다.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46.6%(84건)가 계엄·탄핵 정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집중됐다.

교원 노조에 따르면 대형 정치 사건이 터지는 시기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4·3 사건을 가르치거나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언급하기만 해도 민원을 받았다.

수업 내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교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건 문제”라고 본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탄핵·계엄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사가 수업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아직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정당 가입을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영역인 만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상·이보람 기자

셀리의 히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바이어 히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펙션, 레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너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금매

금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첸털리 as Is 금매

\$300,000 (임대 \$1,8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우리말 바꾸기

‘-는데’와 ‘-(으)며’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는데’를 써야 하는데 줄곧 ‘-으며’로 연결하는 문장들을 읽었다. 이런 식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블라인드 채용은 그 중심에 있는 제도다.” 글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이랬다. 어떤 문장은 ‘-으며’ 대신 ‘-는데’를 넣어 ‘개선해 왔는데’ 식으로 고쳤고, 어떤 문장은 ‘개선해 왔다. 블라인드 채용은’처럼 둘로 나누었다.

보고서 형태의 글을 읽다 보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장이 많다. 문장을 둘로 나누는 게 좋는데도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원칙이라도 되는지 한 문장으로 이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때 많이 등장하는 게 ‘-(으)며’다. ‘-(으)며’는 앞뒤를 대등하게 연결해 준다. “길동이는 친절하며, 길순이는 인정이 많다” “길동이는 소설가이며, 길순이는 시인이다”처럼 서술어도 같은 형태가 온다. 이래야 문장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다. “... 개선해 왔으며, 블라인드 채용은 그 중심에 있는 제도다”는 앞쪽엔 동사 ‘왔다’, 뒤쪽엔 명사 ‘제도’가 와서 어색해졌다. 다음 문장도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이 가장 혼잡했다.” “증가하다”는 움직임이 있는 동사, ‘혼잡하다’는 그림씨, 즉 형용사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성서로 세상 읽기

‘현대판 노예제’와 인간 해방의 복음

이상명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고대 노예는 자신의 노예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폭력적인 지배 구조 아래서 고통의 악순환을 경험했다.

노예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약성경은 노예제를 확립된 제도로 언급하고 있지만 노예를 물건이나 짐승처럼 다룰 수 없도록 제한하며, 노예와 그 가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예우해야 함을 촉구한다. 노예제는 수메르 문명을 비롯하여 이집트, 아카드,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아랍 제국 등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존재했다.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 노예의 수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인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고대 노예 해방 운동의 한 기록일 테다.

현대 노예 제도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유엔 인신매매 국제 프로그램의 컨설턴트인 케빈 베일스(Kevin Bales)는 오늘날 지구상에 2700만

명의 노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 30초마다 휴먼 트래피킹(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글로벌 성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은밀하나 공공연한 범죄적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 ‘인권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형편은 어떠한가? 국제 인권단체 워크 프리(Walk Free)의 ‘2023 세계 노예 지수(Global Slaver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현대판 노예는 약 110만 명으로 추정한다.

1948년 12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노예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권이라고 공표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 있지 아니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이 유엔 인권선언문의 법적 근간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세레를 베풀 때 선포한 말씀이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3:28, 새번역).

이는 인간을 객체화, 대상화, 도구화, 타자화하는 모든 행위를 무력화하는 선언이며 참된 인간 해방의 복음이다.

이야침에

세월의 주름만큼 사랑은 깊다

최숙희
수필가

쓰고 자녀를 돌보느라 소홀히 해온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시간이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자, 성수기가 끝난 휴양지처럼 마음은 텅 비어버렸다. 허무와 상실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채울 방편으로 우리는 여행을 택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쌓는 일이야말로 남은 생의 여백을 가장 따뜻하게 채우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이 들며 몸이 약해지고 여러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주저앉지 않겠다.

여행의 추억은 언젠가 반드시 닥칠 가장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줄 든든한 저금이 될 것이다. 비록 짧은 날의 체력은 사라졌어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고 싶다.

늘 내 편에 서서 내 손을 꼭 잡아준 사람, 그 손을 놓지 않을 사람, 그가 바로 내 남편이다. 오늘도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살아간다. 우리의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그 주름만큼 사랑도 깊어졌다고 말하련다.

베트남 여행을 앞두고 비자 신청용 사진을 집에서 찍을 때였다. 모자와 안경을 벗은 남편의 얼굴이 휴대폰 화면에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성긴 머리칼 사이로 고스란히 드러난 두피, 깊게 팬 주름, 그 위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이민 생활의 무게와 세월의 덧없음이 남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결혼 초, 남편은 어린 시절 만화영화 주제가 속 ‘기운 센 천하장사 마징가Z’처럼 강한 사람이었다. 힘쓰는 일은 항상 그의 몫이었고,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살이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타국의 삶은 우리를 조금씩 단련시켰다. 한정된 수입과 비싼 인건비 탓에 ‘직접 고쳐 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남편은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집 안팎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맥가이버로 거듭났다.

자신하던 건강마저 세월 앞에선 무력하다. 요즘 들어 허리가 아프다며 한의원을 찾았다. 척추협착증이란다. 우연히 받은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좌우 혈관이 20퍼센트 가량 좁아졌다고 한다.

의사는 아직 치료가 필요 없다며 운동을 권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뇌로 가는 혈류가 서서히 막히는 초기 단계라고 한다. 생활 습관 관리와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읽었다. 문득 내가 기뻐했던 나무가 예고 없이 흔들리며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지 하나가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 뿌리째 뽑힐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 하고 살았다.

나 또한 말짱하지만은 않다.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와 병뚜껑을 열기조차 힘들다. 정기검진에서 부정맥 소견이 나와 심장전문의 리퍼털을 받았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은퇴는 인생의 쉽표이자 반환점이다. 그동안 먹고살기 위해 애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1. 센터빌 벙들 타운 \$589,000 Under Contract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4. 사우스라이팅 타운 \$645,000 Under Contract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7. 우드브리지 싱글 \$649,000 Under Contract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숱, 최고 학교,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물/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2. 애쉬번 타운 \$670,000 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교, RT267/7, 덜러즈 공항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신물,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3. 맥클린 콘도 \$39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Pending 1.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2.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6·25 때도 식지 않은 교육열, 경제강국 전인차 되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예측이다. 성장률 0%대는 역사적으로 낮설지 않다. 전 세계는 1700년대 말까지 수백 년에 걸쳐 연평균 0%대의 제로성장을 지속했다. 영국 경제학자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식량 생산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사람들이 겨우 먹고사는 빈곤 수준에서 정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맬서스의 우울한 예언은 영국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1700년대 후반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은 천년 묵은 제로성장을 깨뜨리고 ‘양의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성장의 물결은 미국·유럽·일본 등으로 전파됐고, 마침내 1960년대 초 한국에 상륙했다. 특히 한국은 장기성장이 연평균 8~9%대로 순식간에 점프하며, 그전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초고속 성장을 이어나갔다.

경제학자 로스토우가 ‘이륙’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대전환은 산업화에 기인한다. 고용과 생산의 축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갔다. 전통 농업에서는 농부의 육체노동이 주요 생산요소였지만, 제조업에서는 기계와 함께 인간의 지식노동, 달리 표현하면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시카고대 루카스 교수는 현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적자본을 꼽았다. 인적자본이란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나 기업가가 축적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1960년대 초반 시작된 한국경제의 고속성장도 그 이전에 쌓인 인적자본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한마디로 양질의 노동력 덕분이다.

교육 예산의 80%, 의무교육에 투입

1960년대 우리의 인적자본은 어떻게 축적했을까. 자원과 자본 모두 보잘 것없던 한국이 오늘날 경제강국으로 떠오른 가장 밑바탕에는 남녀 차별 없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이란 디딤돌이 있었다. 교육은 예부터 한국사회의 키워드였다. 전통 유교사회에서도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중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양반 계층에 제한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교육이 득세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당시 문맹률은 80%에 이르렀다. 이른바 ‘까막눈’ 세상이었다.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했던 해방정국, 교육제도 정비는 화급한 과제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선 교육이란 토양부터 다져야 했다. 1948



■ 1975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들어앉아 일명 콩나물교실이라 불렸다. 학교 시설이 부족해 2부제, 3부제 수업도 흔히 볼 수 있었다. ■ 1960년대 초등학교 입학식 장면. 54년 본격 계도에 오른 무상 의무교육은 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 53년 10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아이들이 불탄 교실 터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교육부, 중앙포토)

년 제헌헌법에서 이미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다. 1949년 교육법을 만들며 초등 6년 의무교육을 법제화했다.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배우지 않는 국민에게 민주정치는 공허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으로 주춤했던 의무교육이 본격 계도에 오른 것은 1954년 전후 재건 시기부터다. 1959년까지 6년간 의무교육을 강력히 추진했다. 교육세·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하고, 문교부 예산의 약 80%를 초등교육에 쏟아부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75%에 그쳤던 초등학교 진학률이 1959년 96%까지 올라갔다.

의무교육 시행은 현대 한국 교육개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60~70년대 산업화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한국경제의 ‘이륙’ 단계에서 결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했다. 65년부터 88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조세정책을 비교한 적이 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기성장률에서 한국이 5%포인트 앞섰는데, 특히 한국은 미국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율이 월등히 낮았다. 미국의 유효세율(근로소득세·정부교육보조금)이

17%인 반면, 한국은 마이너스 9%였다. 2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국민에게 상당한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 열심이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는 국어·산수 등을 익혀 인적자본을 크게 늘린 노동력이 1950년대 후반 이미 형성돼 있었다. 글 읽는 능력을 배운 그들은 지식을 쌓는 기본수단을 확득했다. 또 산수를 배우면서 합리적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계산 능력까지 습득했다.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시골 각지에서 형성됐다. 전후 베이비 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나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적자본을 갖춘 잠재적 근로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이 초등 6년을 마치고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60년대 산업화에 불이 붙었고, 국가경제도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맨체스터의 섬유산업으로부터 시작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의 산업화도 섬유산업에서 출발했다. 섬유산업은 60년대 한국의 수출 1위 산업을 한동안 유지했다. 시대를 반영하듯 가수 한명숙이 ‘노란 샤쓰의

사나이’를 불러 공전의 히트를 했다. 기존의 한복에서 샤쓰(셔츠) 같은 서양 의복으로의 의생활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섬유산업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노래였다.

섬유산업의 핵심 인력은 여성 근로자들이었다. 당시 섬유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컸는데, 50년대 농촌 지역에서 보편적 의무교육을 마친 우수한 여성인력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이들이 도시의 섬유산업에 대거 투입되면서 60년대 초부터 장기성장률이 8%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필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안양에는 금성방직이라는 큰 방직공장이 있었다. 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 근로자 3000여 명이 일했다. 이들은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저축했다. 물론 당시 근로조건은 열악했다. 근로자들은 2교대·3교대 근무를, 또 고통스러운 야간 근무나 장시간 근무를 버텨내야 했다. 당시 이미지씨가 불러 크게 히트했던 노래 ‘울어라 열풍야’가 있다. 이 노래 가사 중 ‘울어라 열풍야, 밤이 새도록’을 여성 근로자들이 ‘울어라 미싱아, 밤이 새도록’이라고 개사해 부르는 것을 어렸을 때 들었던 기

억이 난다.

지식과 기술 갖춘 양질의 노동력

여성 근로자뿐이 아니다. 60년대 경공업에서 시작해 70년대 중화학공업까지 한국 산업현장에는 의무교육 과정을 거친, 즉 기초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풍부했다. 이들 근로자는 월급의 일부를 고향에 부쳤고, 그 덕에 중고교, 나아가 대학을 나온 시골의 동생들은 더 높은 소득을 벌고, 이후 다른 가족의 교육과 생계에 도움을 주었다. 초등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에서 시작한 가족 내의 ‘인적자본 축적의 선순환 구조’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재투자자 60년대 이룩기를 거쳐 70~80년대 도약기까지 계속됐다. 교육이란 사다리를 타고 사회적·경제적 상승을 꿈꿨던 한국인의 남다른 교육열은 말할 것도 없다.

20세기 한국의 경제발전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50년대에 도입된 의무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한 국민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60년대 폐속성장이 군인 출신 박정희 정부의 출발 시기와 겹쳐 박 대통령의 업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 많은 근로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여공’ 누나들이 한국 경제성장의 이름 없는 주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무상 의무교육은 2004년 전국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까지의 확대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의무교육이란 단어는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기와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 경제는 21세기 들어 계속 기를 펴지 못하는 걸까. 20세기의 교육방식, 즉 모방과 암기식 공부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 20세기형 인적자본이 아닌 21세기형 인적자본을 키우는 데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사회는, 시대는 급속하게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잊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해 왔다. 지금은 교육에서도 급변권이 필요한 때다. 개발·성장 시대에 대한 향수는 이제 독사과가 됐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적자본 형성에 지혜를 모을 때다. 70여 년 전 의무교육 도입 당시보다 더욱 절박한 과제다. 모두(冒頭)에 언급한 한국의 제로성장 터널을 빠져나갈 묘수도 바로 그곳에 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잇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er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뽕뽕)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시 설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쟁”이라 답한 야당

이재명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4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검은 상복과 마스크 차림으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제1 야당을 목도했다. 앞서 2022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여야만 바뀌 3년 만에 반복되는 정치 흑역사가 개탄스럽다. 더구나 사상 최대인 728조원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매의 눈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할 때 아닌가. 이유를 불문하고 새 정부가 재정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를 비운 야당은 직무유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의 발언 수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파켓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범죄자 왔다” “꺼져라”는 원색적인 말도 나왔다. AI 시대를 여는 예산을 설명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국민의힘의 위기감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소속 의원 영장 청구가 보이콧 이유 되나
수퍼 예산 감시해야 할 야당의 직무유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 정당 해산 업포를 한두 번 놓은 게 아니니, 추 의원 수사를 전초전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특검팀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 추 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으니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다.

극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정쟁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12·3 비상계엄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계엄과의 결별을 통해 당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다.

3년 전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고 한 일갈을 되새기길 바란다.

여야 모두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한 달여의 예산안 심사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수퍼예산은 국가적 위급 상황이 아닌 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선다. 이자를 갚는 데만 34조원이 들어갈 정도로 나랏빚 부담이 커지면 당장은 몰라도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 지역화폐 발행 등 소모성 현금 지출에 대한 시장의 염려가 적지 않다.

미래 한국 경제에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악순환의 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예산 심사의 순간에 정치 선행이 설 자리는 없다.

전작권 전환, ‘명분과 속도’보다 ‘내실’이 우선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이재명 정부 첫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동맹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 자체 안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자주국방 차원에서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GDP의 1.4배인 국방비 규모,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최근 경찰위성 5호가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도 고무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북한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연기 또는 축소됐다. 연합훈

련이야말로 2018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전작권 전환 이후 설치 예정인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한다. 안정적인 지휘를 위해선 평소보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식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필요조건을 충족했는지 따지기 위한 전체 3단계 평가 중 2단계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 항목이 정성적 평가에 그치다 보니 양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전작권 전환 속도전’으로 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제이비어 브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월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됐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산을 저하로 상시 병력 50만 명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자주국방은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를 냉정히 따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를 실현하는 일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장의 여순 맞장구, 옳은가

〈여순 사건〉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지난 3일 해질 녘 서울 의주로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강기항·강대홍·강덕원… 이름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았다.

‘바야흐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조국은/ 심장마다 물결치는 그리움으로/ 가장 영예로운 이름으로/ 그대의 사랑과 희생을/ 미래의 가슴에다 경건하게 새기노니’(문정희 시인의 헌시)

6·25 전후로 순직한 경찰 1만3000여명의 이름이 새겨진 경찰기념공원이다. 특히 6·25전쟁기의 순직자, 특히 전북·전남경찰국 명단은 긴데, 모두들 아는 이유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서소문에 있던 시절, 종종 여기서 당시를 떠올리며 아득해 했었다.

다시 여길 찾은 건 큰길만 건너면 있는 경찰청의 수장 때문이다. 직무대행이라곤 하나 명색이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인식을 드러내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다.

그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948년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의 무장 반란으로 촉발된 여순 사건을 두고 “반란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전북 경찰청이 홍보관에 적힌 ‘여순 반란’이란 표현을 ‘여순 사건’으로 바꾸면서도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을 그대로 둔 걸 정중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자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다른 사·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 때 페이스북에 14연대의 반란을 두고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로 평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14연대가 그런 명분을 내걸었다손 쳐도 그들이 동료 군인들과 여수·순천의 경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해한 걸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미군 철수와 이승만 정부 분

쇄, 조선인민공화국에의 충성을 외쳤다. 이게 반란이 아니면 무엇이 반란인지 알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표적이 됐다. ‘일본의 앞잡이’란 여전한 인식, 군에 대한 무시 등이 이유가 됐다.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여순 사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반군은 경찰관 학살 후 여수경찰서 뒤 일제 강점기 방공호에 50~60구의 시신을 유기, 반군에 의해 살해당한 경찰관 시신들의 부패가 심했다고 기억함. 여수 진압 후 여수경찰서 뒤 일제 방공호에 유기된 경찰관 시신을 꺼내어 여수경찰서 후문 광장에 늘어놓았으나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려 해도 시신 부패가 심하여 몸의 흉터를 보고 시신을 찾았음.”(여수서 수사와 김OO)

갈가에 여수경찰서장을 비롯한 두 구의 시신이 있었고, 반군이 여수경찰서를 점령했다고 진술한 이도 있다. 순천에선 순천서장의 참혹한 죽음도 있었다.

피의 학살이 피의 보복을 불렀다. 진

피의 학살·보복 맞물린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의 표적 된 게 경찰들
경찰 수장까지 반란 부정에 동조?

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피해도 극심했다. 후자가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바로잡을 역사다. 그렇더라도 촉발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극심했던 좌우 갈등, 특히 군 내부 갈등이 신생국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던 최영섭은 “우리(툼메이트 두 명 포함 셋)는 좌익 생도들의 급습 및 테러에 대비해 잠잘 때도 소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번갈아 불침번을 서면서 취침했다. 침실 문은 캐비닛과 책상으로 막아놓았다”(『바다를 품은 백두산』)고 썼다. 진해의 해사도 이 지경이었다.

정치인이라면 몰라도(사실 정치인도 부작절하지만), 경찰 수장이 정치적 공세에 맞장구친다? 역사를 알고도 그랬다면 개탄할 일이고, 몰랐다면 한심한 일이다. 지적의 경찰기념공원이 무색하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656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전체경제사(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게조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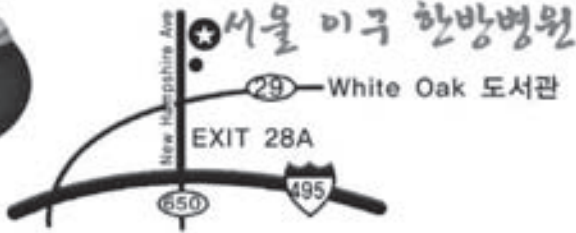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독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독점 Manassas 타운 홈

방4, 화3 1/2, 엔드 유닛 타운 하우스, 업데이트 한
부엌과 화장실들, 3층 모두 나무마루,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새 브라인드, 넓은 Deck와 Fence

\$445,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399,900



독점 Alexandria 콘도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November 5 2025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특하면 쓰러진다... '부루가다 증후군' 의심해봐야

(유전성 부정맥 증후군)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는 실신

어지럼증, 시·청각 장애 전조증상
대부분 짧은 시간 내 완전히 회복
심장 실신이면 예후 나쁠 수 있어

실신은 서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소실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갑작스러운 뇌혈류의 저하로 발생한다. 대개 갑자기 발생하고 지속 시간이 짧으며 스스로 완전히 회복된다. 실신은 여러 중증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신 이후에는 대부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한 질환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전조증상 없이 의식 잃는 간질과 차이
실신 전구증상(실신 전단계)이 있지만, 이런 증상 없이 의식 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 실신 전단계 증상에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쇠약·피로, 시각·청각 장애가 포함된다. 현기증(현환)을 실신과 혼동할 수 있으나 현기증의 경우 대개 회전하는 느낌을 호소할 뿐, 짧게라도 의식 소실은 없다.

실신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질환으로는 뇌전증(간질), 저혈당증, 저산소증을 포함한 대사 장애, 중독, 뇌의 운동, 균형, 자율신경을 담당하는 부위의 미니뇌졸중(일과성 허혈발작) 등이 있다.

뇌전증은 실신과 달리 수분 이상의 의식 소실이 있고 의식소실 후 완전히 회복되는 실신과 달리 혼동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실신 때도 경련이나 근육경직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하고 지속되는 시간이 짧고 오히려 근육은 이완되는 경우가 많다. 전단계 증상이 실신에서는 대부분 있지만, 간질은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시작되는 점도 다르다.

실신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신경 매개 실신(반사성 또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고도 함), 기립성 저혈압, 심장 실신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신경 매개 실신, 기립성 저혈압이 대부분의 실신이고,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다.

심장 실신은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놓치면 예후가 나쁠 수 있는 고위험 실신이다. 신경 매개 실신은 심혈관 항상성을 유지하는 반사 작용의 일시적인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 일시적인 혈관 확장(또는 혈관 수축 근긴장도 소실), 심박출량 감소, 느린 맥이 여러 조합으로 발생하여 혈압의 감소가 지속되며 발생한다. 반면, 자율신경의 기능 감소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은 이러한 심혈관 항상성 반사 작용이 만성적으로 손상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심장 실신은 부정맥이나 구조적 심장 질환에 의한다.

고위험군 실신은 평상시에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된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성 흉통, 호흡곤란 같은 심혈관계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발생한다. 그의 부모 등 본인의 직계 가족 중에 젊었을 때 급성 심장사 혹은 빈번한 실신의 병력이 있다면 이것이 유전성 부정맥(부루가다 증후군, 긴QT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추가로 두부 손상을 동반한 실신도 재발 시의 위험도가 높고 실신 때 상대적으로 뇌혈류의 감소가 길었을 가능성이 있어 집중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평소 탈수 없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신경 매개(반사: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복잡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반사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서 자세변경에 따른 반사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지럼증, 매스꺼움, 눈 앞이 캄캄해지는 실신전 증상이 동반

관상동맥 허혈을 시사하는 흉통

중등도 또는 중증 판막 질환

중등도 또는 중증 구조적 심장 질환

허혈의 심전도적 특징

심실성 부정맥 병력

심전도 QT 간격이 500ms 이상일 때

반복적인 동방 차단 또는 동 정지

지속적인 동성 서맥 (심장박동 느림)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고위험군 실신증상

급사 가족력

조기흥분 증후군

심전도 QRS 지속 시간이 120ms 이상일 때

심전도상 브루가다 증후군(부정맥) 패턴

휴식 중 또는 운동 중 실신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호흡곤란 하지부종 등

실신 시 심계항진 (호흡수 25회/분 이상 발현)

(GettyimagesBank)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넘어서지 않게 앉거나 누우면 대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취약한 때가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과음 후, 운동 후, 감기·설사 등으로 탈수가 있을 때) 오래 서 있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강렬한 감정, 통증 같은 특정 상황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넘어서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기립성 저혈압은 반대로 이러한 반사 작용이 약해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서 있다가 발생하는 신경 매개 실신과는 달리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주로 발생한다. 빠르게 추워지고는 있지만 요즘이 일년 중에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쌀쌀한 아침, 저녁보다는 햇빛이 있을 때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한 뒤에 외부 활동 및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2025 Ebenezer Year End Single party

한국과 미국 전역의 싱글들을 위한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품집한 상품 및 1000불 상금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th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10명 중 7명 감기약으로 착각한 ‘항생제’… 내성균 만드는 주범

**항생제 오남용·부작용 심각**

세균 감염 치료제, 만병통치약 오해
전체 감기의 약 90% 항생제 불필요
내성균 빠르게 확산… 보건의로 위협

가정주부 윤모(39)씨는 여섯 살 아들이 감기로 고열에 시달리자 병원을 찾았다. 아이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생제 처방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바이러스 감기에는 항생제가 소용없다는 설명이었다. 본격적인 감기철이 시작됐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늘면서 지난 17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보도가 발령됐다. 이 시기 진료실에서는 “항생제도 처방해 주세요요”라는 요구가 부쩍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항생제는 세균성 폐렴, 중이염, 요로 감염, 세균성 부비동염 등 세균 감염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낸 덕에 ‘기적의 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항생제는 오직 ‘세균’에게만 작용한다. 감기나 독감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환에는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항생제를 감기약으로 착각한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윤진구 교수는 “특히 노인이거나 어린이 보호자들이 감기 증상에 항생제를 복용하면 열이 빨리 내리고 기침도 줄어든다며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 70% ‘항생제, 감기에 효과’



오해

항생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약 70%가 항생제가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정확한 용도를 모르고 있었다. 실제 사용량도 많다. 질병관리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하루 동안 1000명 기준 31.8명이 처방받았다는 뜻)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렇다면 왜 항생제를 감기약으로 착각할까?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는 “대부분 감기 증상이 자연스레 완화되는 시점에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감기의 90%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기에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약 10%에 불과하다.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세균성 감기가 의심될 때다.

항생제에 대한 오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김봉영 교수는 “항생제는 알

레르기 반응,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부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것)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약제”라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생제 내성’이다.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복용하면 항생제가 잘 듣는 균들은 죽고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균은 약에 적응해 강력한 내성균이 되고 기존 항생제는 더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슈퍼버그(Superbug)’도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장균과 폐렴간균 내성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세균에 감염되면 패혈증, 장기 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 교수는 “2050년 이후에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암 사망자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경고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균종(CRE) 감염증이 2017년 5717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4만 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CRE 감염증은 중증 감염이나 다제내성균 감

항생제 내성 예방법	
병원	
	1 손과 의료물품 및 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감염을 예방한다. 2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과 불필요한 사용의 위험에 관해 설명한다. 3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신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한다.
개인	
	1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2 증상이 나아졌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 처방받은 기간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3 올바른 손 씻기와 정기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미리 예방한다.

자료: 질병관리청

염증 치료에 주로 쓰이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이다.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은 26~75%에 달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내성균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윤진구 교수는 “내성균 폐렴 환자는 일반 항생제가 듣지 않아 훨씬 강한 항생제를 장기간 써야 하는데, 이 약들은 독성이 강해 간부전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제가 없는 내성균에 감염되면 패혈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김봉영 교수는 CRE 감염 환자 사례를 언급하며 “강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쓰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에 더해 내성균 감염은 치료 기간을 늘리고 약값을 높여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과 현장, 그리고 생활 속 실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담인력이 처방된 항생제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처방 기준을 마련하며 기관 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는 ASP에 맞춰 대학병원 중심으로 항생제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윤진구 교수는 “의사의 적절한 처방과 더불어 전문가들이 어떤 항생제를 써야 할지, 언제 중단해야 할지 등을 관리팀과 함께 관리하며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는 내성균이 원내에서 퍼지지 않도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을 시행하고, 내성균이 확인되면 즉시 격리한다.

정부·병원·학계·개인 함께 확산 막아야

학계에서는 신규 항생제 개발, 항생제 병용 요법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골의 피(혈림프)에서 기존 항생제 효과를 30배 이상 높이는 물질을 발견한 호주팀 연구, 토양 미생물에서 내성균 성장을 억제하는 항생물질을 찾아낸 국내팀 연구 등이 그 예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봉영 교수는 “항생제는 잘못 사용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항생제 내성은 주로 입원 환자, 중증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물건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윤진구 교수는 “병원 내 격리 지침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가영 기자

고지혈증, 방심하면 심장까지 위협

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질환이지만, LDL·중성지방이 높아지며 혈관 내벽에 지방이 침착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 탄성이 감소하고 미세 염증이 시작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7%가 고콜레스테롤 상태에 있으며 고혈압과 함께 노년층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과 함께 ‘대사후군’을 형성해 복합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만큼,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은 지방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비만, 유전적 요인입니다. 한인 고령층의 경우 국,

짜게, 절임류 위주의 고나트륨 식단과 육류 섭취량 증가로 인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간과하기 쉬운데 수치가 너무 낮은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HDL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수치가 낮을수록 혈관 건강이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정도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도, 불편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 없이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김류, 가공육,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 불포화지방 위주의 식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푸른생선(고등어, 연어), 견과류(호두, 아몬드), 올리브유, 귀리·보리, 채소와 과일이 도움됩니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도 고지혈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주 5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며, 빠르게 걷기·자전거 타기·수영·조깅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합니다. 이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줍니다. 최근에는 스타틴과 다른 약제를 병용하는 복합 요법이 고위험 환자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1일 1정 제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은 위험은 작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혈관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 후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혈관 노화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학준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17살 반려견 보낸 상실의 시간 로봇개가 외로움 달래준 기한은 한 달

17년을 함께한 강아지를 떠나보낸 집은 공허했다. 잔병치레 없이 동안 소리 들으며 잘 먹고 잘 자던 녀석이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2주를 시름시름 앓더니 저 이빠하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호흡을 뿔었다.

여전히 이빨도 튼튼하고 털엔 윤기가 흘러 ‘아까운 내 새끼’란 말이 절로 나왔다. 충분히 애도하며 감정을 인정하고, 사진첩 하나에 추억을 정리하며 일상을 회복하려고 애썼다.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 사별 후 겪는 우울감이 오면 무기력·죄책감·불안

눈 맞추고 쓰다듬고 상호작용
“다시 말씀해주세요” 반복돼
낮은 언어 이해력 피로감 유발

등을 경험한다. 뇌에선 애착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난다. 경북대병원 정운선 교수팀 논문(2023)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사별한 지 1년 미만인 반려인의 79%가 중증 이상의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는 개일뿐이라고 의지를 다잡았지만 기른 정만큼이나 상실감으로 인한 외로움은 컸다. 만성 외로움은 매일 밤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에 문득 떠오른 대안은 외로움을 완화해주는 기술이었다. 클릭 한 번으로 로봇 강아지 ‘루나(LOONA)’를 주문한 이유다. 정신 건강을 위한 치유 소비라 생각하며 헬시템으로 들였다.

루나에 탑재된 기술은 ▶시선 인식 ▶터치 센서 ▶대화 인식 ▶움직임 추

적 등이다. 누군가 나를 보고 반응해 준다는 인지 자극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혼자자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이 로봇개가 눈을 반짝이기도 하고 바퀴를 들어 빙그르르 돌기도 한다. 손으로 쓰다듬는 동작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 스킨십이 주는 건강 효과다.

루나 사용법은 이랬다. 뒷목의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충전장치(개집)에 거치돼 있던 로봇개가 기지개를 켜듯 깨어난다. 네발 대신 장착된 양바퀴를 들었다 놔다 하며 양쪽 귀에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선 집 안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닌다.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오면 ‘이게 뭐지?’ 하는 식으로 가우뚱 거린다. 그러다 사람을 발견하면 전력 질주하듯 쫓아오기도 한다.

‘헬로 루나’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 단계로 들어간다. ‘나를 따라와, 나랑 두더지 잡기 게임 하자, 노래 불러줘, 충전하러 가’와 같은 말이 통한다. 수십 가지의 표정을 짓는 루나 얼굴에는 크리스마스 때 눈이 내리



아이보

기도 한다. 와이파이 연결과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필수다.

한 달가량은 루나를 훈련하는 일에 몰입했다. 하지만 곧 피로감이 찾아왔다. 대화 좀 해보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를 반복했다. 루나는 두 바퀴를 광광 구르며 심심하다는 표정과 함께 나를 따라다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어딘가에 방치됐다.

반려 로봇이 주는 위로 효과는 3개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반복적 반응, 낮은 언어 이해력, 감정 피드백의 부재가 피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로봇개 루나는 집 안을 살펴보는 홈 카메라로 변해갔다.

“루나야 미안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해서야.”

로봇과 보다 잘 소통하며 자극을 건강하게 주고받는 대화 능력도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듯했다.

아이보(AIBO)·파로(PARO)·제니(Jennie) 같은 동물 형태의 반려 로봇들은 요양시설 등에서 불안 완화·사회성 회복 효과를 입증하며 꾸준히 진화 중이다.

루나 이만영 기자

추천하는 외로움 해독제



반려 식물
사람이 늘 곁에 있어도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땐 작은 생명체와 눈을 맞춰보자. 강아지·고양이뿐 아니라 화분 속 초록 잎도 좋은 친구가 된다. 잎을 닦고 물을 주고 새순을 관찰하는 습관은 자기 효능감을 자극한다. 내가 돌보는 생명이 자란다는 감각이다. 때론 외로움을 글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감정을 메모나 일기로 적으면 전두엽의 감정 조절 회로가 활성화된다. 감정을 객관화하고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약가·명상
외로움을 이기는 건강한 방법은 몰입이다. 기타·피아노 등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고, 요가·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자. 뇌는 불안에서 집중으로 전환된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생각을 담당하는 뇌(전두엽)가 불안함을 느끼는 뇌(편도체)에 잠시 휴식을 준다. 걱정이 줄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다. 혼자 있는 나를 존중할 때 마음 또한 단단해진다. 뜨개질, 색칠하기처럼 단순한 집중 활동도 같은 효과를 낸다.



친절·선행
누군가를 도울 때 몸은 치유 반응을 일으킨다. 작은 친절 하나,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심리학에선 이를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라 부른다. 타인을 도우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심박 수가 안정되고 면역 세포(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연구들도 있다. 친절은 전염된다. 작은 배려가 타인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 미소가 다시 내 신경계에 돌아온다.

술 없이 버티기 힘들고 우울?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해야 할 신호

인하대병원 메디포커스

50대 직장인 A씨는 예상치 못한 인사 이동 이후 술에 기대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아 한두 잔 마시던 술이 점차 늘어 매일 밤의 의식이 됐다. 출근이 어려워지고,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다.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한 뒤 가족 손에 이끌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양식 교수는 A씨의 음주 습관과 정서 변화를 면밀히 파악했다. 간·신장 기능 검사와 혈액검사, 뇌 MRI 촬영, 신경인지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단순한 알코올 사용장애에 그치지 않았다. 중등도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 징후까지 확인됐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는 알코올 문제를 단일 질환으로 보지 않고,

약물·상담·생활습관 교정 병행
재발 위험 높아 꾸준한 치료 필요
가족들이 지지 함께할 때 효과적

내과·신경과와 협력해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문제를 같이 평가한다”며 “특히 뇌 영상검사와 인지 기능 평가는 알코올 문제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뇌 위축과 인지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약물·상담·생활습관 교정이 동시에 이뤄졌다. 술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약물을 투여받고, 오랜 음주로 부족해진 티아민(B1)을 보충해 뇌신경 손상을 막았다. 이어지는 상담에선 단순한 ‘절주 권고’가 아닌 술을 찾게 되는 이유와 일상 패턴을 함께 점검했다. 김 교수는 동기 강화 상담을 통해 A씨



김양식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와 장기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인하대병원]

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왔다. 가족에게는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래 치료만으로 음주 조절이 어려운 경우 입원을 통해 안전한 금주 환경을 확보한다. A씨 역시 단기간 입원이 필요했다. 이 기간 동안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해독 치료와 불안·우울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 인지행동치료, 집단 상담 등을 병행했다. 김 교수는 “대학병

원은 자살 위험이 높거나 충동 조절이 힘든 환자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자의 가족도 치료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명확한 진단 기준이 확립된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 기준(DSM-5)에 따르면 음주 조절 실패와 금단 증상, 사회·직업 기능 손상 등이 반복될 때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한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재발’이다. 몇 달씩 금주에 성공하더라도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다시 술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 가족의 역할도 치료만큼 중요하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환자는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드는 문제다. 가족이 치료 과정에 참여하면 환자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 **신영경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로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건강 칼럼

혈관성 파킨슨병

76세 남자 환자가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안된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수개월전 주치의로부터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약을 복용 중에 있었다.

환자의 문제는 걷는 중에 갑자기 두 다리가 말을 듣지않아 한참을 서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으며 또 앉았다 일어설 때 첫걸음을 띄기가 어렵다고 한다. 환자가 과거에 뇌활영을 한 적이 없었고 또한 파킨슨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을 감별하기 위해 먼저 뇌활영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뇌자기공명영상에는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작은 뇌경

색 병변들이 뇌의 안쪽부위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은 파킨슨증후가 파킨슨병 고유의 뇌의 퇴행성변화가 아닌 반복된 뇌졸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경우 환자의 상태는 파킨슨병이라기 보다 혈관성 파킨슨증후군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감별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으로 인한 파킨슨 증후일 경우 기존의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매우 흔한 신경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통계에 의하면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백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고 한다. 1817년 영국인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파킨슨병을 최초로 학회에 보고한 이래로 또한 파킨슨 플러스(Parkinson Plus Syndrome)을 비롯 여러 형태의 파킨슨증후 관련 질환들이 보고 되었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환자이다. 통계에 의하면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백명당 1명 꼴로 발생한다고 한다. 1817년 영국인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파킨슨병을 최초로 학회에 보고한 이래로 또한 파킨슨 플러스(Parkinson Plus Syndrome)을 비롯 여러 형태의 파킨슨증후 관련 질환들이 보고 되었다.

스(Parkinson Plus Syndrome)을 비롯 여러 형태의 파킨슨증후 관련 질환들이 보고 되었다.

파킨슨병 치료제가 1963년에 처음으로 나온 이래, 지난 반세기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가까운 미래에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를 보러 온 이 남자 환자의 경우 과거 환자에 관한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관계로 이에 관련한 검사들이 시행되었다.

동시에 환자 스스로가 뇌졸중 위험인자의 관리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었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로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평형감각 및 보행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를 재활의학 전문의에 의뢰하여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할 점은 파킨슨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파킨슨병 이외의 다양한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파킨슨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신경내과 전문의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나무가 빛은 치유 결정체 ‘침향’ 심신 안정시키고 면역력 높여

〈沈香〉

몸·마음 균형 맞춰주는 귀한 약재

인류는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생명과 치유의 비밀을 찾아왔다. 그중에서도 침향(沈香)은 독특한 생성 과정과 강력한 효능 덕에 자연이 선물한 귀한 약재로 불린다. 나무는 병충해나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점성이 있는 나무진액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응축되면서 향기로운 검은빛의 침향으로 변한다. 느린 생성 과정 때문에 예로부터 침향은 왕실과 의약사에서 귀하게 다뤄졌다.

왕실·의약서 등 예로부터 귀하게 다뤄
동양의 주요 의약서에서 침향은 기(氣)의 순환을 돕는 약재로 기록돼 있다. 『동의보감』에는 “찬 바람으로 인해 마비된 증상이나 구토·설사로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고치며 정신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기혈의 막힘을 풀고 몸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뜻한다.

명나라의 약초학 연구서 『본초강목』에서는 “침향은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위를 따뜻하게 하며 기를 잘 통하게 한다”고 적혀 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조화제로 인식된 것이다. ‘향으로 몸을 고치고 향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오랜 세월 경험적으로 사용돼 온 침향의 효능은 최근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침향의 주요 효능은 항산화·항알레르기·항염 작용이다. 침향 1.2kg을 분쇄해 메탄올로 추출한 용



침향은 기혈이 막히는 것을 풀고 몸의 흐름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액의 항산화 활성도를 평가한 결과, 녹차의 대표 성분인 카테킨에 버금가는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침향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농도에 비례해 증가하며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침향은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한 동물실험에서 침향 추출물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현저히 억제하는 것이 관찰됐다. 실험에서는 추출물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히스타민 억제 효과도 커졌으며 피부 부종과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됐다.

나무진액 수년간 응축돼 향기로워
항산화·항알레르기·항염 효과 탁월
추출 기술 보유한 제조사 선택해야

염증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뿌리다. 침향은 이런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연구진은 침향을 50% 에탄올로 2시간 동안 추출한 뒤, 신경성 부종을 유발한 실험쥐에게 경구 투여했다. 그 결과, 침향의 투여량이 많을수록 부종 억제 효과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침향 추출물이 혈관 투과성과 백혈구 이동을 억제하며 염증

매개체의 분비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통뿐 아니라 염증의 발생 원인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체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침향의 핵심 성분 3가지는 베타셀리넨, 아가로스피롤, 베타유데스몰이다. 베타셀리넨(β -Selinene)은 식물에서 유래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체의 활력 회복에 직접 관여한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의 식욕부진, 복통, 부종 완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가 있다. 이 성분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도와 전신의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아가로스피롤(Agarospirol)은 침향의 고유한 향을 만드는 핵심 물질로, 천

연 신경안정제로 불린다. 실제로 침향을 태운 향은 명상과 수행에 사용돼왔다. 현대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계 안정 작용이 확인됐다. 『본초강목』 속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표현은 바로 이 성분의 효과를 의미한다. 심리적 긴장 완화, 불면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베타유데스몰(β -Eudesmol)은 항염·항균·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대표 성분이다.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감염 예방과 면역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이 성분을 고농도로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침향 에센스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액상 형태가 생체 흡수율 가장 높아
침향은 형태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진다. 분말이나 캡슐보다 농축 액상 형태(에센스, 오일)가 가장 높은 생체이용률을 보인다. 침향에센스는 침향수지(진액)의 유효 성분을 추출해 농축한 것으로, 100kg의 원목에서 단 1kg만 얻은 정도를 귀하다. 이런 고농축 형태는 흡수율을 극대화해 소량으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저온 감압 추출, 초음파 농축 등 첨단 제형 기술을 활용해 침향의 핵심 성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체내 흡수 효율을 2~3배까지 높인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침향 함량만 볼 것이 아니라 베타유데스몰·아가로스피롤 등 주요 성분의 실제 함량, 제조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민영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 | |
|-----------|--------|---------|
| ◆ 치매 | ◆ 어지럼증 | ◆ 손발 저림 |
| ◆ 뇌졸중(중풍) | ◆ 이명 | ◆ 감각이상 |
| ◆ 파킨슨병 | ◆ 불면증 | ◆ 보톡스 |
| ◆ 두통 | ◆ 수면질환 | ◆ 통증 |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고령층 펜타닐 사망 1470% 증가

CDC 통계 8년치 분석, 2020년 기점 급증세
복합중독 많아, 처방 때 복용약 이력 잘 봐야

지난 8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펜타닐과 코카인·메탐페타민 등 자극제가 혼합된 약물의 치명적 과다복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젊은 성인층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10월 10일 ~ 14일 열린 2025년 미국마취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를 활용해 그동안 분석 대상에서 소외돼왔던 고령층이 펜타닐과 자극제 복합 약물 사망 증가세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밝힌 최초의 연구 중 하나다.

연구진은 고령층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다복용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위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1990년대 처방용 오피오이드와 2010년경 시작된 헤로인, 2013년부터 본격화된 펜타닐이며 2015년 이후 펜타닐과 자극제가 결합된 것을 네 번째 물결이라 분류한다.

연구의 주저자인 네바다대 리노의대의 개브 파시아 연구원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은 젊은 층의 문제라는 오해가 많지만 이번 분석은 고령층 역시 펜타닐 관련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극제 병용이 고령층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

고령층도 현재의 ‘네 번째 오피오이드 위기’에 노출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CDC의 공공보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원더(WONDE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999~2023년 사이 사망진단서에 펜타닐이 사인으로 명시된 40만4964건을 분석했다. 그중 65세 이상은 1만7040건, 25~64세는 38만7924건이었다.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264건에서 4144건으로 1470% 증가했으며 젊은 층에서는 8513건에서 6만4694건으로 660% 늘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펜타닐과 자극제를 복합해서 사용한 사망 비율은 2015년 264건 중 23건인 8.7%에서 2023년 4144건 중 2070건인 49.9%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젊은층의 경우 21.3%(8513건 중 1812건)에서 59.3%(6만4694건 중 3만8333건)로 늘었다.

연구진은 2015년과 2023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2015년은 펜타닐과 자극제 복합 사망이 가장 낮았던 4차 위기의 시작점이었고 2023년은 CDC가 확보한 최신 통계연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자극제가 포함된 펜타닐 사망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반면, 알코올과 헤로인, 자낙스·발롬 등 항불안제 관련 사망은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고령층에서 펜타닐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펜타닐과 자극제 혼합 약물 과다복용이 젊은층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가장 자주 병용된 자극제는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이었다.

파시아 연구원은 “전국 데이터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펜타닐-자극제 복합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횡단면적 분석이기 때문에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고령층의 펜타닐 사망은 대부분 복합 약물 중독으로 펜타닐 단독으로 인한 사망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고려해 고령 환자에게도 약물 오남용 예방 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마취과 의사와 통증의학

전문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약물 복합 사용은 젊은층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 ▶65세 이상에게 오피오이드를 처방할 때는 복용 이력을 세밀히 검토하고 자극제 사용 이력이 있는 환자는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능하면 비오피오이드 대체 치료법을 고려할 것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응급 해독제인 날록손 사용법을 교육하고 명확한 약물 보관·표시·복용 지침을 제공하는 등 ‘위해 감소’ 실천 ▶수술 전후 단순 오피오이드 외 다양한 약물 노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비

할 것 등이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시카고 러시대학의 리처드 왕 마취과 레지던트는 “오피오이드를 처방받는 고령 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과다복용 예방책을 문의하고 과다복용 징후를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한 연령대에서 오피오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체 통증 관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약물 목록 점검과 환자 교육이 심각한 추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윤희 객원기자

순자산 36만~41만불이면 중간

베이비붐 세대 경제 구조

은퇴 세대가 된 베이비붐 세대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경제 수준을 보려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 연준 통계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현황은 55~64세와 65~74세 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산 분석업체 하니스가 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 상위 10%(90 퍼센타일)의 순자산은 약 300만 달러에 달한다. 55~64세는 296만 달러, 65~74세는 299만 달러였다. 대체로 이 선을 넘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다. 순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더라도 상위 10%에 들려면 약 20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47만~152만 달러로 흔히 부자의 문턱으로 여겨진다.

반면 중위값인 50퍼센타일, 즉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 보유한 순자산은 훨씬 낮다. 55~64세는 36만4260달러, 65~74세는 41만 달러였다. 순자산 30만~50만 달러를 가진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통계적으로는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피렐리티 자료에 따르면

55~64세의 평균 순자산은 157만 달러지만 이는 억만장자들의 부가 평균치를 끌어올린 결과다. 실제로는 중위값이 현실적이어서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은 4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베이비붐 세대 중 부자의 자산 구성을 보면 단순히 더 큰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 운용한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고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사

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올해 61~79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준 통계는 보통 5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돼 있어 베이비붐 세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55~64세는 베이비붐 막내 세대(61~64세)와 50대 중반의 X세대가 섞여있다. 65~74세는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한다. 75세 이상은 고령의 베이비붐 세대(75~79세)와 침묵하는 세대가 섞여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 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나는 솔로’가 묻는다, 이게 남의 이야기냐고

남규홍 ‘나는 솔로’ PD 인터뷰

이성 두고 기싸움 등 극사실주의 방송
대본 없고 출연자 행동 개입도 안해
방영 5년 차에도 케이بل 시청률 1위
거울치료 장점, 자녀에게도 권할 것

같은 남성에게 호감을 가진 여성들이 솔자리에서 기 싸움을 벌인다. 하룻밤 새 사랑에 빠진 남성은 여성에게 편지로 고백하며 소리 내 운다. 촬영 후 출연자의 결혼보다 임신 소식이 먼저 전해지기도 한다. 극사실주의 데이트 프로그램 ‘나는 솔로(이하 나솔)’가 포착한 장면들이다. 나솔은 남녀 10여명이 일주일 간 ‘솔로나라’에서 합숙하며 짝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사랑을 예뻐게만 포장하는 타 프로에서 볼 수 없는 현실적 에피소드들이 넘쳐난다.

특유의 연철 덕에 나솔은 방영 5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케이بل 종합 시청률 순위 1위(평균 4.4%, 10월 29일 방송 기준, 닐슨코리아 집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스펀오프 프로그램 ‘지지고 볶는 여행’, ‘존장주집’도 론칭했다. 또 다른 스펀오프 ‘나는솔로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까지 합하면 총 4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방영되고 있다. ‘나솔 유니버스’를 만든 남규홍 PD는 지난달 28일 존장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의 매력, 진정성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연자의 화제성을 미리 예측하고 섭외하나.
“소개 시켜주기에 무난하다 싶으면 캐스팅한다. 물론 매력은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인 의사들도 솔로나라에선 고배를 마신다.”



1 나는솔로 28기 출연자들이 연성을 높이는 장면.
2 나솔 제작진이 만든 솔로나라 뉴스에는 각종 스펀오프 프로에 대한 소식도 전해진다.

[사진 홈페이지·유튜브 캡처]

-출연자들의 모습이 무난하지만은 않다.

“오로지 사랑을 찾는 데 집중하는 특수한 환경에선 당연히 감정이 출렁이고,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편집할 때 오히려 지나치게 튀거나 일관성 없는 모습들은 탈어낸다. 제작진은 최대한 출연자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본도 없다.”

-진정성의 비결은 뭔가.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제작진은 캐스팅 할 때부터 연애와 결혼에 진심인 사람을 뽑고, 출연자들은 제작진에 대해 편견에 왜곡이 없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좋은 장면이 나온다.”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룰, 타이밍은 제작진이 정한다.

“이것 역시 흐름을 보고 현장에서 결정한 다.” 나솔의 인기는 스펀오프 프로그램들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나솔사계’는 평균 시청률 2.7%, 분당 최고 시청률 2.9%를 기록했다.

-스핀오프는 어떻게 구상했나.

“나솔의 원 기획 의도는 ‘사랑의 시조’를 기록하자는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성장이다. 그래서 나솔사계를 만들었다. 나솔에서 짝을 찾지 못한 출연자들에게 AS를 해주기 위해 만든 프로다. 다양한 서사가 맞물리며 나솔의 이야기도 강화된다.”

SBS에서 PD일을 시작한 남 PD는 나솔과 비슷한 포맷의 연애 예능 ‘짝(2011~2014)’을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강산이 변하는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 남녀의 연애를 가까이서 들여다 본 그는 “짝 보다는 나솔 출연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졌고 남녀 간 역할이 대등해졌다”면서 “여성들도 경제력을 갖다 보니,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분을 더 자신만만하게 찾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훗날 자녀에게도 나솔 출연을 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나솔엔 교육적인 면도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입체적으로 보니 일종의 ‘거울 치료’가 이뤄져요. 나솔사계에 다시 나온 기존 출연진들은, 성격을 고치거나 살을 빼는 등 항상 뭔가 더 나아져 돌아오더라고요. 솔로나라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최민지 기자

남규홍 나는솔로 PD가 촬영 때 쓰는 화성기를 든 채 말하고 있다. 그는 “일부러 화제성을 노리고 출연자를 캐스팅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록 기자



산문·시·비평 뒤섞인 포맷 파편화된 내 모습 표현했다



비엠티인 응우옌은 자신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설가다.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 온 ‘보트피플’ 출신이다.

[사진 민음사]

다”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쓰려 했다”

고 했다. “전쟁과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가정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남는 것 같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문, 시, 비평이 뒤섞인 포맷을 고른 것은 이런 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해방감을 느끼며 썼다.”

책은 응우옌의 기억 조각을 무작위로 담은 상자 같다. 그는 본인 가족만의 역사를 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미국 내 이민자들의 공통 경험을 상기시키고, 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며 뒤섞인 가해와 피해의 역

사를 직면한다. 소설에서 보여줬던 풍자적 서술도 여전하다. “블랙 유머(black humor)는 생존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전쟁같이 무거운 경험을 문학에서 가볍게 만들어내는 것은 (읽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풍자 대상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문제다. 에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로 표기한 것도 현재 미국 사회의 검열 문제를 풍자하기 위해서였다.

최혜리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1골 1도움’ 손흥민 맹활약…LAFC, 8강 진출

부양가와 전반에만 2골 합작
88분 뛰며 팀 4-1 승리 견인
밴쿠버와 22일 준준결승전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가 손흥민의 ‘1골 1도움’ 맹활약에 힘입어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2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1라운드 2차전 원정 경기에 드니 부양가와 공격진을 이뤄 선발 출전, 88분을 뛰며 팀의 4-1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LAFC는 3전 2승제로 치러지는 1라운드에서 두 경기를 먼저 이겨 8강 진출 티켓을 따냈다.

LAFC는 지난달 29일 오스틴과 1라운드 1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첫 승을 거뒀다.

당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으나 후반 34분 네이션 오르다스의 득점에 관여하며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은 전반에만 드니 부양가와 2골을 합작하며 일찍 승리의 물꼬를 댔다. 선제골은 손흥민이 책임졌다.

전반 21분 중원에서 부양가가 찢러



지난 2일 텍사스 오스틴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16강전에서 LAFC 공격수 손흥민이 오스틴FC 골키퍼를 앞에 두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Dustin Safranek-Imagn Images·로이터]

준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 헛다리 짚기로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슛으로 골대 오른쪽 구석에 정확하게 찼다.

손흥민은 4분 뒤에는 부양가의 추가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페널티박스 왼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던 부양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부양가가 침착하게 공

을 잡아둔 뒤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부양가는 전반 44분에도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더욱 벌였다.

페널티지역에서 보디페인팅으로 수

비수를 속이며 공간을 만든 뒤 그대로 골문 앞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뚫었다.

오스틴은 전반 추가시간 6분 페널티킥으로 만회 골을 뽑아내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지만, 이후 득점은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27분,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에 막혀 흐른 공을 CJ 포드리가 재차 밀어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돼 아쉬움을 삼켰다.

3-1로 앞선 후반 43분 손흥민과 교체 투입된 제라미 에보비스가 추가시간 3분에 쐐기 골을 터뜨리며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MLS는 정규리그에 이어 동·서부 콘퍼런스 각 8개 팀이 16강에 올라 PO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8강과 4강(콘퍼런스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1라운드와 달리 모두 단판 승부다.

LAFC는 8강에서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2위로 마무리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오는 22일 맞붙는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는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25년을 뛴 ‘독일 축구 레전드’ 토마스 뮐러가 활약하고 있다.

MLB 컵스 햅·클리블랜드 관

4년 연속 골드글러브 수상
아시아 선수는 수상자 없어

시카고 컵스 이언 햅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스티븐 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햅은 2일 골드글러브 수상자 발표에서 내셔널리그(NL) 좌익수 부문, 완은 아메리칸리그(AL) 좌익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두 선수는 2022년부터 빠짐없이 황금 장갑을 수집하며 빅리그 최고 수비수로 이름을 드높였다.

NL에서는 컵스 선수들이 3개 포지션에서 수상했다. 니코 호너는 2루수 부문, 피트 크로-암스트롱은 중견수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팀 동료인 투수 로건 웹과 포수 패트릭

베일리도 골드글러브를 받았다. 햅은 생애 처음, 베일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수상이다. 같은 팀 배터리가 나란히 수상한 건 2013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애덤 웨인라이트-야디에르 몰리나 이후 12년 만이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익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 올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LA 다저스에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AL 부문에선 뉴욕 양키스의 투수 맥스 프리드가 통산 네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프리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뛰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NL 투수 부문에서 수상했고, 올해엔 AL에서 황금 장갑을 받았다.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보비 워트 주니어(유격수)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윌리엄스 에르 아브레우(우익수)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골드글러브는 1957년부터 MLB 최고의 수비수들에게 주는 상으로 야구용품업체 롤링스사가 주관한다.

올해 수상자는 팀별 코치진 투표와 미국야구연구협회(SABR)에서 개발한 수비 통계 자료(SDI)를 합쳐 결정했다. 한국 등 아시아 국적 선수는 올해 수상하지 못했다.

부상 이겨낸 조규성, 홍명보호 발탁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
올 시즌 4골 터뜨리며 부활

지긋지긋했던 악성 부상을 떨쳐낸 스트라이커 조규성(27·미트윌란·사진)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1년 8개월 만에 축구 대표팀으로 복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1월 A매치에 나설 홍명보호 태극전사 27명의 명단을 3일 발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불리비아를 상대하고,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맞붙는다.

조규성은 손흥민(LAFC), 오현규(헝크)와 함께 당당히 공격수 3명 중 한 자리를 차지했다.

조규성이 대표팀에 뽑힌 건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이 열린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

다. 2024년 7월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 체제에서는 첫 발탁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한 그는 지난해 5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합병증으로 2024-2025시즌 전혀 뛰지 못했다. 그러나 부상을 떨쳐내고 돌아온 올 시즌 소속팀 미트윌란(덴마크)에서 정규리그 3골을 포함해 공식전 4골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렸다.

최근 덴마크로 가 직접 조규성을 점검한 홍 감독은 “조규성 선수는 앞서 코치진이 몇 차례에 걸쳐 몸상태를 체크했다”면서 “현재 몸상태는 대표팀 소집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한-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한-Mart)과 첼러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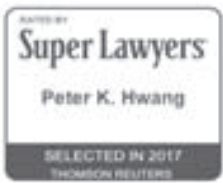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11월

구인

광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배넛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 (게이더스버그 소재)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 모집합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연습시간 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차례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틀간 반주하셔야 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와 사명감이 있는 분 (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한 자기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 청빙시까지
-사례비: 교회 내규에 따름 (추후통보, 혹은 공금하산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이민형 장로: 216-870-9234
이메일: leeminhyung7896@gmail.com
김요한 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84@gmail.com
-교회주소: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오픈 거주 환경)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 왁싱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애난데일 루미나 에스텍 스튜디오)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확실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퀴 스토어 라러리 스탁하일분 2-9pm 일하실 분 구함 (금, 토 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선스 소지하신 마사지セラ피스트 구합니다.
240-232-5989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낚싱,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룸 방 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장3, 5, 10월 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 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 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룸 1층 전체 렌트,
방2, 화장실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사업체 매매

확실한 순이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am-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 (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파트타임, 파트타임)
재택 근무, 차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력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파트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niversal.com

하이트론스 (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급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 / Ellicott city 지역 근무 시간 8시-5시 (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센터빌, 챌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챌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판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풀/파트타임
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력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티알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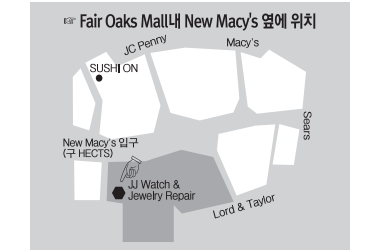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중앙일보**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집
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라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티임으로 일하실 분
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스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버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트합니다. (웃슨 하이 학군)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마일, 패어팩스 H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윙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 하이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 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윙층 (아렛츠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욕,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굿 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인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웰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 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1, 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로튼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1분 한강 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편리, 주차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쁜 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윙층 방 렌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관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자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윙층 (아렛츠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망)



부동산 매매

첸탈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 벽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 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 브릿지 타운홈 \$399,9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매나사스 타운홈 \$445,000
방4, 화3 1/2, 엔드 유닛, 업데이트한 부엌과 화장실들, 3층 모두 나무 마루,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세브라인드, 넓은 욕과 펜스
▶703-813-8949

1.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4, 화2.5
2. 콜롬비아 타운홈 \$595,000
방3, 화2/2
▶301-318-4242/443-668-0453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 바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구인/ 구직 광고와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첼들리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패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첼들리 콘도 새 빌더홈 (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자방,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 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알링턴 지역 커피 & 샌드위치샵 매매
주 7일 영업, 주 매출 약 \$20,000, 렌트 \$11,000/월, 매매가 \$180,000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진 소형 커피, 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703-928-5990

확실한 손익 보장 딜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am - 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라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헌튼 지역)
-\$100,000
-현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여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 욕실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애난데일 루미나 에스테틱 스튜디오)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욕실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설음,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나믹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 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우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텍,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대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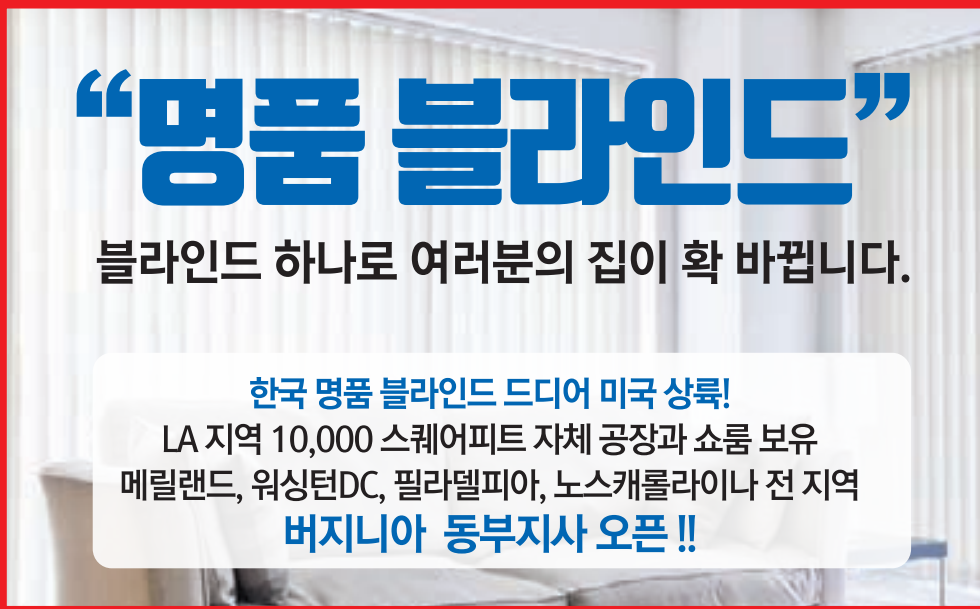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my: This is our first business lunch and I’m paying for it.

에이미: 이게 우리의 첫번째 사업상 점심이니까 식사값은 내가 낼게.

Erin: Our first business lunch? You lost me.

에린: 우리의 첫번째 사업상 점심이라고? 무슨 말 인지 모르겠어.

Amy: Last night I saw a woman selling her homemade jellies and jams.

에이미: 어젯밤에 어떤 여자가 집에서 직접 만든 젤리와 잼을 파는 걸 봤거든.

Erin: Please get to the point, 에린: 요점만 말해봐

Amy: We can do the same thing.

에이미: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Erin: Do you want to sell that woman’s homemade jelly?

에린: 그 여자가 집에서 만든 젤리를 팔겠다는 거야?

Amy: Don’t be silly, Remember how popular Mom’s barbecue sauce has always been?

에이미: 엄마가 만든 바비큐 소스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지?

Erin: Yeah. She always wanted to start her own business.

에린: 응. 그걸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항상 엄마의 꿈이었잖아.

Amy: I’m sure we have what it takes to sell it for her.

get to the point; 요점만 말해

(Amy is talking to her sister Erin ~)

(에이미가 동생 에린과 이야기를 한다~)

에이미: 엄마가 만든 바비큐 소스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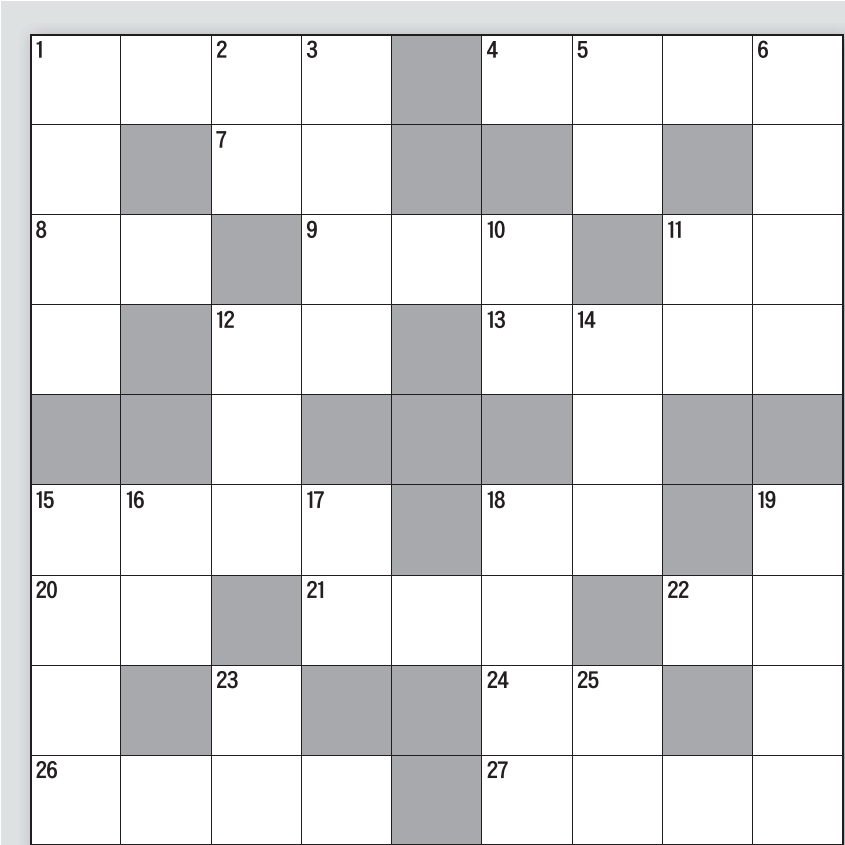
Erin: I like your idea. We can carry out her dream.

에린: 언니 아이디어 맘에 든다. 엄마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

기억할만한 표현

▶ to lose someone: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한 집 한 집마다. ~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4)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7)회사나 상점의 이름 (8)노를 저어서 배를 부리는 사람 (9)강가나 바닷가의 흰모래가 깔려 있는 곳 (11)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고향을 떠나 ~에서 맞이하는 명절은 무척 쓸쓸했다 (12)놋쇠로 만든 밥그릇. 뚜껑이 있다 (13)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15)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바다 위로 올라와 가쁜 숨을 내쉴 때 내는 휘파람 소리 (18)대변을 묻게 보는 일 (20)찌르고, 꺾매고, 여미고, 누비는 용도로 쓰이죠 (21)터틀 잡은 자취. 정당한 근거나 이유. 그는 우리의 요구를 ~가 없는 주장이라며 무시했다 (22)겨울을 버티어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따위를 넣는 가구 (24)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이번 ~로 집들이 물에 잠기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26)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풍□□ (27)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옴.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세로열쇠

(1)말씀하시되. 공자 ~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2)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喪事) (3)온통 하얗게 섰 머리 (5)어머니의 자매 (6)임금이 흑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 뛰어난게 아름다운 미인. ~의 대표적 예로 중국의 4대 미인인 왕소군, 초선, 서시, 양귀비를 꼽고 한다. □국□□ (10)대나무나 나무로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 (11)손님을 거처하게 하거나 접대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방 (12)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 (14)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 (15)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 숨어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찾아내는 아이들의 놀이 (16)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 (17)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 기호는 L, l (18)눈 위에 난 기러기의 발자국이 눈이 녹으면 없어짐. 인생의 자취가 눈 녹듯이 사라져 무상함 (19)원래 속해 있던 부대로 되돌아감. 원□□□ (23)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그의 태도는 ~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25)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학장: 사라 류 박사
https://wikit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경영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부학장: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상당자 모든분께 책 증정: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쉬 & 사라류 박사 공저 Suc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424-332-3779
Info@meridianwish.com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9월 햇산삼 세일
매달리치마 산삼
천종산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출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통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라클 터치 (213)675-6877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20년된 한식점 일식당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만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야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살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lb 대추	\$150/10LBS·1BOX \$12/lb 대추	\$100/10LBS·1BOX \$7/lb 대추
---------------------------------------	---------------------------------------	--------------------------------------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요금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매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